



코스피(9월)	코스닥
1965.69 (-3.5P)	620.02 (+0.21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215.60 (+4.80원)	1.228% (-0.006%P)

## 미래에셋대우 ‘조국펀드’에 1000억 대출확약

### ‘서울교통공사 회의록’ 단독 입수

코링크PE가 투자 위임한 피앤피플러스에 대출확약서 발급  
서울시 적정 평가...을 4월 자격 조건 충족 못해 계약해지

“궤후보자 영향력’ 정치권 넘어 금융권 뻗친 것 아니냐” 의혹도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를 위임한 피앤피플러스에 1000억 원 규모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정치권을 넘어 금융권까지 뻗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사모펀드 논란’이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 20452’ 문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20일 교통공사 분사 별관 인제개발원에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투자확약서 적정성 검토’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공사 정보통신처 관계자 2명, 피앤피플러스 관계자 3명,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피앤피플러스는 우민전기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구성 방식으로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320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웰스씨앤티, 바루소프트, 제이미디어

#### 피앤피플러스, 공공 와이파이사업 위한 자금확보 현황



넷, 우민전기, 세영통신, 에스아이리소스, 아이넷시스템즈 등 7개 회사의 유상증자로 245억 원의 투자확약서를 확보해 총 565억 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금과 투자확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회의록에는 미래에셋대우가 PF대출자 자격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타인 자본 금융기관 대출확약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시가 미래에셋대우의 대출 확약에 ‘적정’ 평가를 내렸고, 사업 준비 기간인 2020년 2월 11일 이전까지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지 않고 자본금도 부실한 신생 기업에 큰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은 미래에셋대우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밝혀진 피앤피플러스 주주 명단에는 현직 민주당 중진 의원 A 씨의 전 보좌관과 전직 민주당 의원 B 씨의 보좌관이 올라 있다.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서모 씨 역시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는 “친분으로 대출 확약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미래에셋대우뿐 아니라 KTB와 DB증권도 합쳐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 단계까지 갔었다. 하나금융과 코링크도 각각 500억 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였지만 투자 확약 단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가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은 2017년 8월 말 서울지하철의 초고속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자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8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추석 택배 “바쁘다 바빠”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열을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D의 공포’ 우려가 현실로

(deflation·디플레이션)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 동기보다 0.04% 떨어진 104.81  
정부 “공급요인 따른 일시적 현상”  
GDP디플레이터도 3분기째 하락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3분기 연속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관련기사 5면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전년 동기(104.85)보다 0.04% 내렸다.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소수점 한 자릿수초 공표돼 공식적인 상승률은 0.0%이지만, 지수로는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후 첫 마이너스 물가다. 과거 가장 낮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사태 직후였던 1999년 2월의 0.2%였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3%포인트(P) 끌어내렸다.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하락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지난해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각각 급락했다. 그나마 두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0.9% 오르며 3~7월 추세를 이어갔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교육·복지 등 정책적 영향으로 물가 흐름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마이너스 물가’를 공급·정책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요 축소 인보다는 공급 축소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공급 축소인의 기저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0%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기저효과가 완화하는 연말부터는 0%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올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1%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 등 일각에선 “디플레이션의 전조”라고 진단한다.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저물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종합적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하며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GDP 디플레이터 하락은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저물가에 수요 축소 요인이 더해지면 총체적 경기침체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현재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1.8%) 정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아시아나 인수전...애경·KCGI·미래에셋 참여

SK·한화·CJ 등 대기업 응찰 안해  
이르면 내달 본입찰...연내 완료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에 애경그룹과 강성부펀드(KCGI),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유력한 후보로 막판까지 기대를 모은 SK와 한화, CJ 등 대기업들은 결국 예비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3일 관련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날 오후 2시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이때까지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애경과 KCGI, 미래에셋-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 3곳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그룹은 일찌감치 아시아나 인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선두를 넘어 단숨에 대형항공

사(FSC)로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조 원대로 추산되는 인수자금은 애경 입찰에선 부담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경은 적격 후보자(소트리스트)에 포함돼 실사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FSC의 운영 노하우를 파악하는 실익을 쟁길 수 있다. 사측은 소트리스트 선정과 실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해 최종 인수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선 미래에셋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인맥이 이번 빅딜에 함께 나선 배경으로 전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역시 FI로 응찰했다. 비밀유지 협약으로 어느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KCGI는 항공사, 물류, 항공기 리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종의 투자자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KCGI는 한진그룹과의 컨소시엄을 제안했지만, 한진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SK를 비롯한 대기업 후보군은 이번 예비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들도 FI로 나서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결국 자금력을 갖춘 곳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CS는 예비입찰 응찰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소트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실사를 거쳐 10~11월 본입찰이 진행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이주혜 기자 winjh@

# “국내선 짓지 않으면서 원전 수출한다는 건 모순”

“후배들은 자긍심 잃지 말길”

퇴임 김성원 두산중 부사장

직원들에게 남긴 편지 눈길

탈원전 정책 후 수주 절반 줄어

두산중 직원 2000명 순환 휴직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Plant EPC BG장)이 최근 회사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남긴 편지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모순’이라며 일갈하는 동시에 회사를 떠나는 후배 직원들에 대한 진솔한 안타까움을 담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편지에서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탈원전 기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두산중공업)가 직면한 어려움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모

든 회사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멀쩡하게 지난 40년간 단 한 명의 인재 사고도 내지 않고 한국 산업, 경제 발전의 기동 역할을 해 온 원자력 사업이 죄인처럼 몰리고, 자기 나라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짓지 않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서 수출한다고 돌아다니는 이중적 모순 상황에서 ‘더는 회사의 어려움은 안에서만 해결하기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전 부사장은 경영자로 일하며 느낀 개인적인 소회 또한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BG장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후배 직원들의 이직 사표를 결재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회사를 떠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영자가 무슨 면목으로 자리를 지킬까 하는 자괴감이 ‘끝까지 해보자’는 자긍심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며 실업 위기에 처하자, 7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산업부 주변 담에 묶고 있다.

결국 밖에서 다른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현장에서 묵묵히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며 편지 끝부분에 “부디

그 자긍심을 잃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원자력·화력 등 발전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10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1379억 원에 비해 20.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수주 실적(4조6441억 원) 또한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전인 2016년(9조534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활로 개척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내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미국과 영국, 체코 등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용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50여 명의 직원을 두산인프라코어, (주)두산 등 관계사로 전출시켰고, 올해 상반기에는 사무직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실시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현대건설, 상반기 ‘최다 벌점’ 불명예

올해 상반기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총 5건(현장벌점 3.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되는 중대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를 조사해 벌점을 부과한다. 토공사의 부실,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 벌점 대상이다.

벌점 부과기관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

국철도시시설공단에서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 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벌점을 내렸다.

벌점 부과기관은 국토부(산하 지방청 포함),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다. 조사 대상은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곳이다. 국토부나 발주청, 인허가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현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벌점은 반기별로 책정한다. 해당 반기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 등 국토부, 건설사 벌점 현황 공개 대립산업·GS건설 뒤이어

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합산하고, 같은 기간 점검받은 현장 수를 나눠 평균 벌점을 산정한다.

현대건설에 이어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대립산업으로 나타났다. 대립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을 문제로 지적받아 벌점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로 부터는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을 문제로 2건이나 벌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립산업은 2017년 상반기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벌점을 이번 상반기에 다시 부과받았다.

이어 GS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으로 2건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의 불량’ 등의 문제로 벌점을 받았다.

이 밖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벌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올해 상반기 건설사 벌점

건설사	부과기관	현장 벌점	반기별 벌점 : 평균벌점
현대건설	대전도시공사	0.26	0.1
	국토교통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0.84	
	국토교통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0.84	
	한국철도시설공단	0.8	
	한국도로공사	0.4	
대립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0.8	0.07
	한국도로공사	0.5	
	한국도로공사	0.9	
GS건설	국방시설본부(예원7기)	2	0.06
	한국철도시설공단	0.6	
	한국철도시설공단	1.4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1.4	0.05
포스코건설	부산광역시	3	0.15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 미래에셋 컨소시엄 급부상... SK, 본입찰 '눈치보기'

## 후보별 변수는

올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3일 오후 2시까지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3~4군데에서 입찰의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은 면했다. 이번 인수전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후 본입찰 참여가 가능해,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판도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날 서류를 제출한 애경그룹은 실사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 선정이 아닌 실사 단계까지만 가도 그동안 열심히 쫓았던 대형항공사(FSC) 경영의 면면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어서다. 나아가 최종 인수자가 되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매각'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제주항공과의 시너지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 단위 매각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자금 확보가 관건이다. 아시아나항공

3~4군데 입찰했지만 대기업 빠져 미래에셋, SI로 현대산업개발 맞손 인수금 부족한 애경 '헛입찰' 관측 단독입찰 불가 KCGI, 투자자 모호

부채는 9조 원을 넘는다.

또 다른 입찰 참여자로 알려진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사모펀드)는 재무적 투자자(FI) 단독 입찰이 불가능 해 어떤 기업을 전략적투자자(SI)로 삼을지가 관심사였다. 해당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력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KCGI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항공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항공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에셋대우도 FI로서 인수전에 뛰어 들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또 다른 유력 인수자로 떠올랐다. 특히 박현주 회장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 및 산업의 분리원칙(금산분리)에 따라 직접 인수가 불가능 해 SI로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았다. 현대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항공사 인수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별 변수

- 애경그룹**
  - 현금성 자산 부족 우려: 3000억~4000억 원 수준
  - 실사 단계까지만 가도 대형항공사(FSC) 경영의 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점
- KCGI**
  - 재무적 투자자(FI) 단독 입찰이 불가능해 컨소시엄 구성이 관건
-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 유력 후보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하고 있어 사업 시너지 및 사업 다각화 기대
- SK**
  - 가격 하락 여부에 따라 추후 본입찰 참여 가능성
  - 반도체 항공 운송 연계 효과, 항공유 시장 점유율 높아질 가능성

따른 사업 시너지 기대된다. 또 다른 SI로 거론됐던 GS그룹은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부터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SK는 여전히 '인수 가능한 후보'로 거론된다. 아시아나 값값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SK는 향후 매각가가 낮아질 경우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12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인수 당시 마지막까지

버티며 매각가를 낮춘 상황과 유사하다. 그룹 자산 중 30%가까이 차지하며 거물로 성장한 SK하이닉스 당시 인수금액이 3조 원을 조금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 매각가로 예상되는 약 2조 원과 큰 차이가 없다. SK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통신사와 항공사의 시너지, 항공으로 운송되는 반도체와의 연계, 높아질 항공유 시장 점유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각금액 외에도 △부채 규모 △유사시 지원 수혜 가능성 △추가 유상증자 여부 및 그 규모 등이 인수 참여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은 걸림돌이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기준 부채는 총 9조598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60%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항공사들의 부채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연내 매각' 조급한 정부·채권단 "대기업, 본입찰 기회 열어줄 것"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SK, GS, 한화 등 정부와 채권단이 원했던 대기업 그룹이 결국 불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당국이 올해 매각 성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번엔 매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의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의 한 관계자는 3일 매각 절차에 대해 "예비입찰 참여자만 본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일반론이지 무조건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원매자들도 다음에 본입찰 등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예비입찰 이후로도 대기업 그룹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당국과 채권단에서는 '연내 매각'에 방점을 찍고 이를 성사하기 위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만약 기대에 못 미치는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인수를 진행하다 유찰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올해 매각이 힘들 수 있는데 정부와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매각을 끝내려는 분위기라 예외적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아시아나를 사들이기를 바랐지만, 최근 들어 기조가 다소 바뀐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정부는 여전히 SK나 한화, GS 등이 사기를 바라면서도, 최근 들어 '정 안 되면 펀드애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관련 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 담당자에게서 '엄청나게 큰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진 않을

###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단위: 억 원, %, 2019년 상반기)

부채	9조5989	순차입금	5조4937
부채비율	660	순차입금 비율	377.46
총차입금	5조5476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48

\* 출처: 금융감독원

것'이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예비입찰에 참여한 KCGI나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대기업 그룹의 차선책으로서 물망에 오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수에 대한 KCGI의 의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KCGI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 인수 주체는 대한항공 지분 매입을 총괄했던 사람"이라며 "강성부 KCGI 대표가 단순히 지분차익 실현이 아니라, 아시아나 경영 자체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건은 항공업계의 업황과 이에 따른 아시아나의 몸값 변화다.

채권단 관계자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 매각이 흥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도 "최근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더해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채권단 내부적으로도 흥행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지난달쯤부터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나가 증점으로 삼고 있는 대중, 대일 노선이 축소했고, 실적 악화도 현실화했다.

아시아나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1169억 원에 달했다. 대한항공도 2분기 986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항공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현재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몸값을 2조 원 정도로 추산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시간은 원매자의 편"이라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CAU 중앙대학교

## 내일의 창을 여는 중앙의 창의 인재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전문적 지식이 아닌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가 이룰 것입니다. 전공을 뛰어넘고 학문의 경계를 없앤 중앙의 창의 교육시스템으로 내일을 이룰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Global Creative Leader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9.9.6(금)10:00~9.9(월)18:00 <http://admission.cau.ac.kr> 02)820-6393

# 환경·디자인 산업 육성, 일자리 5만개 만든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선제 지원... 5년간 연 30억~200억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25.7조 중 40.2%가 실업자 대책

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최대 5년간 연 30억~20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5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한다. 대상은 산업협력지구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

된 일자리 사업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허용한다.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를 포함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공

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2022년까지 약 54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환경 컨설팅'과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환경 측정·분석사의 경우 환경 측정 업체의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환경 분야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000억여 원으로 편성된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등 실업자 생계지원 예산이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김상조 靑 실장, 민주노총 첫 방문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 김명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소비자 카톡 제보시스템 도입

정부가 식품안전 우려가 큰 생채, 낙지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큰 생채(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콩치, 뽕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 대상이다.

수품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을 투입해 필요할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

전국 3000여 개의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향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제보 시스템도 처음 운영해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서울 주요 병원 '비자 신체검사 담합' 적발

해외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체검사 비용을 똑같이 받은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한라의료재단,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나다 대사관이 지정한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에이즈검

사 항목이 추가된 2002년 1월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2006년 5월에 신체검사료를 각각 14만 원, 17만 원으로 합의했다.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 등 5곳은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과 2006년 5월에 각각 2만 원, 3만 원 오른 14만 원, 17만 원으로 결정했다.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인 삼육서울대병원 등 4곳과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인 조선대병원 등 11곳은 한 차례 신체검사료 인상(3만 원)에 합의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靑, 조국 임명 강행 수순...야 3당 "조 후보 사퇴해야"

"청문보고서 6일까지 보내라"  
야 "간담회로 부적격 사유 늘어"  
야 반발... 국정조사·특검 검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중대 결단'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하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

민들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한국당의 정치 공세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면서 "기어코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반론 간담회'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려주고, 신정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진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10억 원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공공사 주수에 성공한다"며 "조 후보자에게는 알라딘의 지나라도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며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국의 원맨쇼로 의혹은 커졌고 무능만 확인시켰다"며 "조국을 버려라.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문 대통령·아웅산 수지 "비자면제 1년 연장"

미안마서 정상회담... 신도시·항만 개발 등 경제 협력키로

미안마를 국민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3일 한국 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와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미안마 네피도 대통령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수지 국가고문은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평화프로세스를 논의하면서 "미안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라카인(로힝아족 박해)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에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와 전력·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표적 경제사업인 '한-미안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윈스토퍼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인 비자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미안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미안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중인 시범사업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6일까지 킨텍스서... 307개사 참여

국내 최대 에너지 분야 전시회인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7개사(총 1100부스)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 에너지효율 혁신'을 주제로 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주영준(사진)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을 비롯해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갑규 LG전자 부사장, 이재환 삼성전자 상무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실장은 축사에서 "에너지효율 혁신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라며 "기업과 소비자 협력해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5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에너지 대전에선 49차례 세미나·포럼·교육 행사와 14개 국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혁신 특별관을 위해 신설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향후 비전 및 과제, 기대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효율관에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전자제품,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녹색건축특별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녹색건축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스마트조명특별관에서는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와 제품, 기술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에너지 분야 적정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창업 아이디어의 무료전시를 지원하고 중앙부대에서 진행되는 '에너지분야 스타트업 시민참여 공개심사'를 통해 신(新)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6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계약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정부는 아니지만... “저성장·저물가 지속뎌 디플레”

정부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 내년 1%대 상승”  
 전문가 “설비·건설투자 부진 지속 등 수요 측면 하방 압력”  
 KDI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하고 금리 내려 경기 대응해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설비투자 위축 등 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04%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0.7% 내리며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연도 가격(경상)으로 계산한 명목 GDP를 기준연도 가격(불변)으로 계산한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다.

정부와 한은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남아 있고, 지난해 8월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올해 8월 59달러로 하락한 것이 최근 저물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복지정책 확대 등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개인서비스 상승률(1.8%)을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윤연식 한은 부총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연말경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

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저물가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윤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오랜 기간 하회하고 있다”며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의 움직임에 있어 경기 순환적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미국은 1.8%, 일본은 0.5%, 영국은 2.1%, 독일은 1.1%, 프랑스는 1.3%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저물가가 글로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도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일본은 1995년 디플레이션 국면에 앞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조하며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윤연식(맨 왼쪽) 한국은행 부총재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을 보였다.

다만 수요 측면의 물가 하방 압력도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수요 측 압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근 저물가에 수요 측 요인이 더해져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되면 그 자체가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기계류 내수출하)와 건설수주는 고용, 소비

(소매판매) 등의 선행적 성격을 띤다. 투자 부진은 미래 수요를 위축시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온전히 공급·정책적 요인으로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밑돌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진다.

GDP 디플레이터 하락도 장기적으로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상

반기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첨부한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으로 실질성장률이 축소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산술적으로 경상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KDI는 추가적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올 성장률 2% 달성도 ‘가물가물’

2분기 GDP 1% 증가 그쳐  
 “경제 약점 점검하고 대응을”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를 밑돌면서 올해 2%대 성장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일 경제전쟁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내부 약점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쉽게 반전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우리 경제의 약점을 찾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성장에 머물렀다. 이는 속보치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조정된 것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경제장관은 “경기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대외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3~4분기 각각 전기 대비 0.9%에서 1.0% 성장해야 한은의 올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 성장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국내적으로도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오너리스크로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올해 성장률은 2%보다 낮을 것”이라고 봤다.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신태 국

실질 국내총생산 GDP(분기별)



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개선 요인으로 기대했던 재정지출 확대도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추경의 경우 집행이 늦었고 내수에 도움을 줄 만한 부문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와 세율 인하를 비롯해 경제 약점을 미리 점검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금리인하와 소비세 및 유류세 등 세율인하를 하면 올해 2% 성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경기 위축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본과의 통상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외리스크가 커질 때를 대비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기자 kimnh21c@

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LIFE사업(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대학

# M

시작됩니다!  
나의 두번째 미래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수시모집

평생학습자전형(만 30세 이상자) /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3년 이상 재직자)

**수능성적 NO!**  
서류·면접만으로  
100% 입학가능

**민간 등록금**  
장학금 최대 50%  
지원

**맞춤형 수업**  
주2회 1+1  
(월말1달+수말1달)

**전라·복수전공**  
미래융합대학 내  
모든 학과 가능

**미래학습진로센터 운영**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습·진로 상담지원

**인터넷접수** | 2019. 9. 6.(금) ~ 9.10.(화)

**지원자격** · 평생학습자전형 : 만 30세 이상자  
·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계 재직 중인 자  
(군·의무복무경력 재직기간에 포함)

모집인원	모집인원		
	평생학습자전형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단과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7	12
	사회복지학과	11	20
	부동산학과	11	20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	6	16
	심리치료학과	6	24
	미래융합경영학과	3	32
	멀티미디어학과	2	23
<b>계</b>	<b>46</b>	<b>147</b>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02-300-1572~3, 1563 future.m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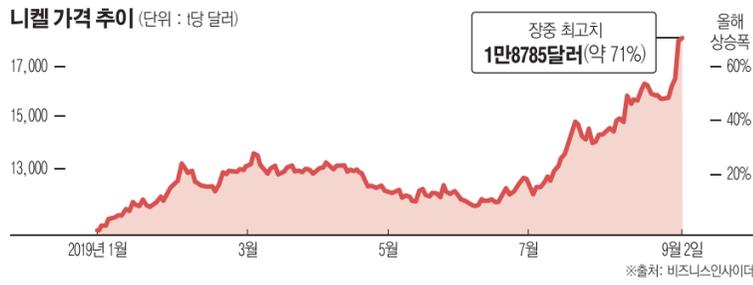
# ‘전기차 강국’ 노리는 印尼… 내년부터 니켈 수출 중단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단행  
니켈, 공급난 우려 가격 급등

세계 최대 니켈광석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니켈광석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에 니켈 수출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밤방 가툰 아리요노 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광물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중단은 모든 등급의 니켈광석에 적용될 것”이라며 “수출업체들은 기존 고정계약과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을 중단할



것이다. 4개월의 이행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굴 가능한 니켈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올해 들어 7월까지 3800만t의 니켈을 수출했다. 이런 속도라면 매장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확인 매장량은 6억9800만 t에 불과하며 이는 제련소에 7.3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현재

11개의 제련소가 있으며 25곳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글로벌 니켈 공급의 26%를 차지했다. 수출 중단 조치로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공급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다. 중국 리서치업체 안타이커(安泰科)는 이번 조치로 내년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공급 부족분이 10만 t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가 조기에 수출 중단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시장에 떠돌았다. 니켈 가격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71% 폭등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니켈 가격이 장중 t당 1만8785달러(약 2285만 원)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수출 금지로 3개월 안에 니켈 가격이 2만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도 수출을 중단했다가 2017년 규제를 완화해 낮은 등급의 니켈광석 수출은 허가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이전 제재로 복귀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생산을 늘리면 서 글로벌 니켈 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

로는 우려의 시각이 더 컸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야오위위 금속 투자전략가는 “인도네시아 조치가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주요 전기차 자동차 생산국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 리튬이온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풀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 생산의 20%를 전기차로 차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토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7월 “일본 도요타가 앞으로 5년 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투자 계획에는 전기차 생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캘리포니아 보트 화재 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버바라 인근 산타크루즈섬 연안에서 2일(현지시간) 길이 약 23m의 다이버용 소형 보트에서 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트에는 33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 등 총 39명이 탑승했다. 그중 승무원 5명은 구조됐으나 8명은 사망하고 나머지는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승객들은 잠을 자려고 대부분 갑판 밑에 있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샌타버바라/로이터연합뉴스

## “사의는 맞지만 사임은 아냐” 속내 들킨 캐리 램 ‘사면초가’

〈홍콩 행정장관〉

홍콩 최고지도자인 캐리 램(사진) 행정장관이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캐리 램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중국 정부에 사임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로이터통신이 지난주 캐리 램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연설 녹음을 공개한 것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는 해당 녹음과 관련해 이날 “중국 정부에 사임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토 상급자들과 이를 의논한 일조차 없다”며 “사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나의 선택이다. 나는 여러 차례 나의 팀이 홍콩을 돕기 위해 남아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적인 회의에서의 내 발언이 녹음돼 미디어에 누설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해 녹음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물러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실토했다.

연설 녹음에 따르면 램 장관은 영어로 30분 정도 연설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임하고 깊이 사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계 양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전례 없는 긴장의 한가운데에서 이번 사태가 일종의 주권과 안보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램 장관은 13주째 계속된 소요사태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나의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에 대한 시민의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파악할 만큼 세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지도자로서 홍콩에 이렇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성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아베 못 민나... 현금 쌓는 대기업

“적극 투자” 외치는 아베노믹스에 역행... 현금보유액 사상 최대

일본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현금보유액은 탄탄한 기업 체력을 입증하지만, 그만큼 투자 기회 등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상장사의 현금보유액은 현재 약 4조8000억 달러(약 506조4000억 엔)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의 현금보유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집권 2기를 시작한 2013년 3월 이후 약 3배 불어난 규모다.

기업들은 이처럼 막대한 현금보유액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성장을 위해 투자하거나 주주환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업들에 자금을 은행에 쌓아놓지 말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실시했

**일본 기업 현금보유액 추이**  
(단위: 조 엔)  
※출처: 블룸버그



다. 그러나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이 이처럼 쌓였다는 건 그런 아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제프리스재팬의 주하이르 칸 리서치 부문 책임자는 “일본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순이익의 70%를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밖에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닛코자산운용의 가미야마 나오키 수석 투자전략가도 “이런 구두쇠와 같은 상황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BNP파리바의 펠릭스 램 선임 아시아-태평양 주식 포트폴리오 매

니저는 “일본 기업의 현금보유량이 이렇게 막대한 이유는 경영진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증시 토픽스지수 구성 기업의 올해 2분기 주당순이익은 2012년 4분기 대비 80% 늘었다.

람 매니저는 “최근 3년간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이 아닌, 주주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8조4000억 엔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S&P500 기업들이 지난해 약 80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주주환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상장 앞둔 아람코 ‘빈 살만 측근’으로 수장 교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회장을 교체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람코는 칼리드 알 팔리 현 아람코 회장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야세르 알 루미안 사우디 국부펀드(PIF) 회장을 임명했다. 신임 루미안 회장은 정권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이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IPO를 앞두고 아람코를 에너지부에서 분리해 이해상충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아람코 회장을 맡아온 알 팔리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임명에서 이번 인사는 사실상 경질이다. 알 팔리 장관은 사우디 석유 생산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에너지·광물부 개편에 따라 산업유전부가 신설되면서 담당 영역이 절반가량 축

소됐다.

블룸버그는 또 PIF가 아람코 상장 준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PIF는 그동안 테슬라와 우버 등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이 과정에서 루미안 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었다. PIF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1000억 달러 비전펀드에도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람코 상장은 세계 최대 IPO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에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람코의 상장도 그 중요한 일각을 담당한다.

아람코의 IPO는 4월 12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발행한 후 가속화했다. 아람코는 기업가치가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예상치는 1조 5000억 달러다. 김서영 기자 0jung2@

KT&G에서  
**당신의 비전을  
 펼쳐보세요**

같은 세상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당신  
 남다른 시각으로 KT&G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나갈  
 비전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2019년 KT&G 신입·경력사원 모집**  
 채용 홈페이지 : [ktng.recruiter.co.kr](http://ktng.recruiter.co.kr)  
 접수기간 (신입) : 9/04 (수) ~ 9/24 (화) 오후 3시까지  
 (경력) : 8/28 (수) ~ 9/16 (월) 오후 3시까지

# 인공지능 투자자문사 '신한AI' 출범 빅데이터로 '세계 금융시장 변화' 선제 대응

신한금융 16번째 자회사 등록  
국내외 전문가 협업 '네오' 개발  
최적의 포트폴리오 고객 추천  
조용병 회장 "디지털 혁신 상징"



신한카드 임영진(왼쪽부터) 사장, 신한AI 배진수 사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한AI' 출범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투자자문사인 '신한AI'가 공식 출범했다. 신한금융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용병 회장과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AI 출범식을 열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은행과 증권 등 주요 자회사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보물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빅데이터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을 더욱 빠르게 예측하고, 우수 상품을 추천하는 '네오(NEO, AI 분석모델)'를 연구·개발했다.

네오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뜻의 '뉴(NEW)'와 신한금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원 신한(ONE SHINHAN)'을 결합해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30년 이상의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한다. 앞으로 AI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 신용평가,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더

욱 객관적이고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며 "VIP들이 받던 투자자문 서비스를 일반 고객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신한금융은 7월 '신한AI'를 투자 자문업으로 정식 등록했으며,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편입 승인까지 받았다. 이로써 신한AI는 신한금융의 16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그룹 내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인재도 영입 중이다. 글로벌 AI 연구 기업인 '엘리먼트A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도 손잡았다. 조 회장은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성장시켜 '신한AI'를 글로벌 수준의 전문 AI회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고객에게도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오픈뱅킹' 사전설명회 100여개 금융사 발길 내달 은행권 시범 운영 실시

모바일 앱(APP) 하나로 모든 은행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 운영에 100여개 기업이 몰렸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미래에셋대우, 조국펀드 대출

▶1면서 계속

같은 해 12월 28일자로 협상을 완료한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은 서울교통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8년 1월 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은 해당 기간까지 서울교통공사에 납입해야 할 지급이행보증금 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5개 협력업체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한 뒤 2월 12일에 납입을 완료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4월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비롯해 기술, 비용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하겠다는 조건부 투자약정서를 2017년 보낸 것이고, 이후 회사 내 IB팀이 거래를 진행하려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 저축銀, 가계대출 전략 양극화

경기둔화 대비 대출 비중 축소에도  
'업계 1위' SBI저축銀, 4% 늘려

저축은행이 자산 규모별로 올해 상반기 대출금 운용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업체는 중금리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했지만, 다른 곳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 이후 경기 변동과 대출 규제가 회사별로 상반된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일 각 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들은 대출금이 모두 증가했지만,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은 업체별로 달랐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가계자금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38억 원

증가한 3조2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업자금 대출은 3060억 원 증가한 3조4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비중은 전년 동기 44%에서 48%로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55%에서 51%로 감소했다. 반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줄거나 큰 변동이 없었다. OK저축은행은 가계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3억 원 증가한 3조345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59%보다 약 7%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1% 안팎으로 변동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변동은 업계 상위권 업체로의 중금리대출 쏠림 현상과 각 사별 경영전략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확대는) 중금리대출 시장을 먼저 출시한 영향과 대출총량규제 완화 이후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가 크게 작용했다"며 "자체 중금리대출을 확보한 회사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갓치지 못한 곳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자체 중금리대출을 보유한 곳은 26곳으로 전체 79개 저축은행 세 곳 가운데 한 곳 수준이다.

이마저도 상위권 업체가 중금리대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지 않은 저축은행은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위권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각종 대출 규제 영향 등 수익감소 요인과 함께 가계대출 부실 우려로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이 영향은)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시중은행처럼 즉각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연말과 내년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 실적 발표에서 총 당기순이익은 59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 ‘아픈 손가락’ 코웨이... 재인수 3개월 만에 생이별 눈앞

## 기업회생 보고서 <20·끝> 웅진그룹

“국내에선 실패하면 재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개인과 가족이 모두 파산하죠.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사회에 한 번 실패한 기업도 성공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은 성공한 듯 보였다. 이 선언 이후 5개월 만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코웨이를 다시 품은 것이다. 2013년 계열사의 위기가 그룹 전체에 퍼지는 과정에서 ‘눈물을 머금고’ 코웨이를 떠나보낸 지 6년 만이다. 하지만 이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또한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생긴 부담이 컸다. 윤 회장은 지금 코웨이와 또 한 번의 이별을 앞두고 있다.

◇건설사 인수... 2008년 금융위기로 그룹 해체까지 = 2007년. 윤 회장은 론스타로부터 극동건설을 66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생활가전과 음료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분위기를 타고 윤 회장은 전혀 낯선 분야인 건설업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침체했고, 국내 주택시장도 얼어붙었다. 건설업계에서도 불황이 시작됐다. 극동건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에 빠진다. 2007년 373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9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에는 91억 원 적자전환했다. 2011년에 적자 규모는 1979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해 말 극동건설의 유동부채는 9073억 원으로 9895억 원인 유동자산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웅진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을 살리고자 자금을 풀었다. 웅진홀딩스는 2011년 유상증자를 통해 극동건설에 1000억 원을 출자했고, 이후 1년여간 5차례에 걸쳐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줬다. 2012년 상반기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연대 보증해주기도 했다. 그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 당시는 극동건설의 부도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였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심폐소생’은 끝내 실패했다. 2012년 9월 25일 부도가 났다. 바로 다음 날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다음 달 11일 법원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과정에서 웅진그룹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짜 계열사’ 들을 하나둘 매각했다. 해가 지나 2013년 1월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한다. 2월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9월과 11월 각각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을 한앤컴퍼니와 도레이첨단소재에 넘겼다. 이와 동시에 윤 회장 일가는 두 차례의 사재 출연으로 7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서 웅진은 2014년 2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회생에 들어간 지 16개월 만의 ‘조기 졸업’이었다.

◇‘재기’의 움직임... 코웨이 재인수까지 = 회생이라는 ‘상흔’ 뒤 웅진에 남은 계열사는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북센 △웅진플레이도시 △오션스위츠 △웅진투투립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등 7개뿐이었다. 사실상 웅진의 모태인 교육·출판업과 태양광 사업만이 남은 셈이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 재건의 발판으로 태양광 사업과 정수기 렌탈 사업에 집중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을 하나둘 인수했다. 웅진에너지는 2016년 8월 SK솔믹스로부터 잉곳 성장로와 웨이퍼링 장비 등 태양광 사업 자산을 사들였다. 2016년 6월에는 GS그룹의 계열사 GSE&R솔라에서 웨이퍼 생산용 공장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웅진에너지는 잉곳과 웨이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 정수기 렌탈 사업

### 무리한 사업 확장이 낳은 위기

2007년 극동건설 6600억에 인수 이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탄 지주·건설사 동반 회생절차 밟아 결국 코웨이·식품·케미칼 청산

### 재기의 불씨 살렸지만

회생 신청 16개월 만에 조기 졸업 태양광·렌탈 사업 중점 재건 발판 매각 6년 만에 코웨이 되찾아

### 영광의 재현은 ‘물거품’으로

코웨이 인수자금 80%가 차입금 그룹 신용등급도 한 단계 하락 투자자 모집 차질... 재매각 추진

이 이뤄졌다. 웅진코웨이 매각 당시 ‘5년 겸업 금지’ 조항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다. 2015년 6월 웅진에버스카이를 만들고, 터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한국형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웅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윤 회장은 코웨이를 다시 사들여야 했다. ‘5년 겸업 금지’ 조항 시효가 끝난 다음 날인 2018년 1월 3일 윤 회장은 정수기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동시에 코웨이 인수 작업을 진행했다.

2019년 3월 22일. 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한 지 6년 만에 웅진그룹은 ‘웅진’ 코웨이를 되찾았다. 웅진씽크빅이 총 2조 원을 들여 코웨이의 지분 약 25%를 사들이는 식으로 인수가 진행됐다. 웅진그룹 자산은 2조5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웅진씽크빅, 웅진 렌탈의 방문판매 인력(1만3000명)과 코웨이 인력(2만 명)을 합쳐 3만3000명의 방문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렇게 웅진은 ‘흑역사’를 떨쳐내고 회생에 성공하는 듯 보였다.

◇다시 찾아온 위기... 3개월 만에 또 매물로 = 위기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무엇보다 성공했다. 충분한 현금도 없이 인수를 밀어붙였던 것이 화근이었다. 80%.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자금 중에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 2조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 중 1조1000억 원은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이었다. 5000억 원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자체로 마련한 것은 4000억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웅진그룹의 자금 조달에 ‘빨간불’마저 켜졌다. 5월 웅진에너지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3월 한영회계법인이 웅진에너지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낸 여파다. 웅진에너지는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동시에, CB 등에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웅진그룹 회생 일지

2007	웅진그룹, 극동건설 인수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012.9	극동건설·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신청
2013	웅진그룹, 웅진코웨이·웅진식품·웅진케미칼 매각
2014.2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졸업
2018.1	웅진그룹, 정수기 사업 재진출/선언코웨이 인수 작업 시작
2019.3	웅진그룹, 코웨이 인수
5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신청
6	웅진그룹, 코웨이 재매각 결정

이후 웅진그룹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떨어졌다. 웅진에너지발(發) 웅진그룹의 신용도 하락은 부메랑이 돼 웅진씽크빅으로 돌아갔다. 당초 5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던 CB 투자자 모집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6월, 웅진그룹은 코웨이를 사들인 지 3

개월 만에 재매각을 결정했다. 지난달 마감된 예비입찰은 흥행했다. 국내 대기업인 SK네트웍스를 포함해 중국계 가전기업 하이얼,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 등 7곳 정도가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큰 규모의 방문판매 조직과 안정적인 실적 등 코웨이는 매력적인 매물이

였다. 매각 주관사는 그중 SK네트웍스와 중국 하이얼-린드먼아시아 컨소시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그룹과 베인캐피탈 등 4곳을 적격 예비인수 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25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각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센터 1588-8245

〈초근접 촬영〉

# 접사렌즈 탑재한 갤럭시폰 나온다

삼성전자, 갤럭시A시리즈 적용 계획  
‘밀레니얼 세대’ 인기 보급형 폰  
3D심도 등 신기술 先 탑재 전략  
기존엔 망원·광각·초광각 조합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접사를 찍기 위해선 따로 렌즈를 구매해야 했다. 사진은 접사렌즈를 장착한 스마트폰. 이투데이DB

망원렌즈와 광각렌즈에 이어 접사(Close-up) 렌즈까지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올 전망이다. 첫 접사렌즈 탑재 제품은 삼성전자가 갤럭시A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함께 스마트폰용 접사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접사를 찍기 위해선 별도로 렌즈를 구매해야 했다. 접사는 렌즈 초점거리의 10배보다 촬영 거리가 짧은 조건을 말하며 근접 촬영이라고도 한다. 기본 렌즈로도 접사 촬영이 가능한 때도 있지만, 더욱 정밀한 촬영에는 접사렌즈가 필요하다. 꽃이나 곤충 등을 주로 접사 촬영한다. 접사렌즈를

따로 구매하면 2만~5만 원이 든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보급형 라인업 갤럭시A 시리즈에 접사렌즈를 탑재할 계획이다. 삼성의 기존 보급형 스마트폰 카메라에 기본, 망원, 광각, 초광각, 심도 렌즈 등을 조합해왔다.

이미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라인업 갤럭시S 시리즈가 아닌 보급형 라인업 갤럭시A 시리즈에 사상 첫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주요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최근 주요 소비층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 옮겨가면서 가성비 좋은 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신기술 선공개’ 전략의 갤럭시A 시리즈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뒷면에 카메라 4개가 달린 갤럭시A9, 디스플레이 상단에 작은 구멍(홀)을 뚫은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최초 탑재한 갤럭시A8s를 잇달아 선보이며 호평을 끌어냈다.

4월 출시한 갤럭시A80에는 갤럭시 최초로 로테이팅 카메라를 탑재했다. 로테이팅 카메라는 셀피 촬영을 위해 모드를 전환하면 뒤쪽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앞으로 자동 전환되는 게 특징이다.

스마트폰 뒷면에 탑재된 카메라는 4800만 화소 기본카메라에 3D 심도 카메라, 초

광각 카메라다. 사용자는 로테이팅 카메라로 셀피 모드에서도 앞뒤가 같은 고화질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고동진 사장은 최근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삼성이 하는 모든 일의 핵심에는 고객이 있고 ‘Z세대’라 불리는 신(新)고객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 전략을 다시 짜게 됐다”고 밝혔다. 고 사장이 Z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향후 10년간 모바일 기기 수요의 40%를 차지할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세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A는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이라며 “다양한 신기술을 선공개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실속형 소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5.2m 국내 최장 SUV 쉐보레 ‘트래버스’ 공개

쉐보레가 3일 대형 SUV 트래버스(Traverse·사진)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트래버스의 차체는 전장 5200mm, 전폭 2000mm, 전고 1785mm다. 현대차 팔리세이드의 전장은 5m가 안 되지만 트래버스는 5.2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차체 길이와 3m가 넘는 휠베이스로 여유 있는 실내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 선보인 트래버스는 2열 독립식 캡틴 시트를 장착한 7인승 모델이다. 3열 시트의 레그룸은 동급 중 가장 넓은 850mm로 전 좌석 승객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트래버스의 트렁크 적재량은 651리터로, 3열 시트를 접을 경우 1636리터,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최대 2780리터까지 늘어난다.

트래버스는 고성능 3.6리터,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얹고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36.8kg.m의 힘을 낸다.

기본으로 갖춘 사륜구동 시스템은 스위처블 AWD 기술로 주행 중 필요에 따라 FWD 모드 및 AWD 모드로 바꿀 수 있다. FWD 모드 시에는 불필요한 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높은 연료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첨단 편의 장비도 갖췄다. 스마트 원격 시동 시스템과 연동되는 오토 캐빈 클라이 및 최적 제어 시스템은 운전자가 설정한 실내 온도 및 외부 온도의 조건에 따라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통풍 시트, 트라이존 오토 에어컨 등을 자동으로 작동한다. 동급 유일의 1열 센터 에어백은 GM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로 사고 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 판매가격은 △LT Leather 4520만 원 △LT Leather Premium 4900만 원 △RS 5098만 원 △Premier 5324만 원 △레드라인 5522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현대차 노사, 위기 의식 공감...통상임금 갈등 마침표

임단협 8년 만에 무분규 타결  
노조 투표서 56% 찬성  
소송 취하...최저임금 논란 해소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무분규로 최종 타결됐다. 대내·외 위기 의식에 노사가 공감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호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3일 새벽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참여해 2만4743명

(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무엇보다 이번 최종 타결로 현대차는 7년째 지루하게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노조는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 명목의 특별 격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3년 처

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앞서 현대차는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근로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2011년 이후 8

년 만에 무분규 타결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 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자동차 시장 저성장 기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사측과 위기 의식을 공감한 노조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 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 원 지원, 1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갤폴드 240만원 6일 출시...선결제 시작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가격이 정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폴드 가격을 239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예약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나 일부 삼성전자가 디지털 프라자 등 유통망에서 삼성전자와 관계없이 2일부터 이 가격으로 사전 결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폴드는 이통3사 모델과 자급제 모델로 모두 출시하지만, 초반 자급제 위주로 물량을 극소량만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이통사에 배정된 초기 물량이 300~400대, 자급제 물량은 2000~3000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갤럭시 폴드는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6일로 당겨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호성 베트남 스파텍스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호성은 베트남 공장을 인도와 함께 ‘100년 효성’의 전략적 기반으로 키우고 있다. 사진제공 호성

## ‘100년 효성 기반’ 인도 스파텍스 공장 이달 가동

13억 인구 세계 2위 내수시장  
점유율 60%→70% 목표

효성이 이달부터 인도 스파텍스 공장의 상업생산을 시작, 13억 명의 인구를 지닌 인도의 내수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8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마) 아우릭 공단에 연산 1만8000톤 규모의 스파텍스 공장 건설을 마무리 짓고, 이달 중순 양산에 돌입한다.

이곳은 효성이 인도에 건립하는 첫 번째 스파텍스 공장이다. 효성은 이 공장을 중심으로 인도의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 현재 60%인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효성 관계자는 “인도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갖

춘 동시에, 글로벌 최대 섬유 시장 중 하나”라며 “인도 스파텍스 시장의 경우 하급 등 무슬림웨어와 데님, 란제리, 스포츠웨어, 기저귀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평균 16% 이상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인도 스파텍스 공장을 선봉장으로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인도 섬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근 섬유 산업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그동안 인도의 스파텍스 시장은 인도 기업들의 생산으로만 이뤄져 온 독과점 생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 본다”며 “차별화된 기능, 품질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마케팅을 펼쳐 나간다면 이른 시일 내에 기대한 수익 확보가 이뤄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완공된 인도 스파텍스 공장은 그룹 차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인도가 그룹의 비전인 ‘100년 효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지역이기 때문이다. 앞서 효성은 ‘100년 효성’을 이뤄 나가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베트남과 함께 인도를 선택하고, 인도 스파텍스 공장을 인도 내수시장 공략의 참병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 총수인 조현준 효성 회장도 건설 협의 단계에서부터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등 인도 스파텍스 공장 건립에 공들여 왔다. 지난해 2월 공장 건설을 확정지을 때에도 조 회장은 직접 인도를 방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다.

변효선 기자 hsbu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전용 케이스를 장착한 갤럭시폴드 사진제공 삼성전자

## LG 8K 올레드 TV 10개국 출시

LG전자가 8K TV를 앞세워 해외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국내 시장에 출시된 8K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이달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시작으로 10여 개국에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8K 해상도와 나노셀 기술을 적용한 75인치 슈퍼울트라 HD TV는 연말까지 약 20개국에 출시된다. LG 8K TV 전 모델의 화질 선명도(CM)는 기준치인 50%를 훌쩍 넘는 약 90%다. LG전자 관계자는 “화질 선명도는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정색을 대비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이라며 “흰색과 검정색을 각각 명확하게 표현할수록 화질 선명도 값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8K TV 중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독자 개발한 화질 칩에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8K’ 프로세서를 적용해 화질, 사운드를 알아서 최적화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혁신금융을 어시스트하다



꿈을 가진 벤처 창업가들이  
혁신을 드리블하고 한계를 넘어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길 바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지원 사업으로  
함께 꿈을 키우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 혁신금융협의회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출범

#### 혁신금융 20조원 지원

2021년까지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 대상 20조 지원 예정

#### 하나벤처스 설립

국내 최초 신기술 금융사 설립 및 1천억 펀드 조성 예정

# LG화학, 배터리 추가 소송 검토...SK이노에 강공 전환

LG화학 “맞불 소송 묵과 못해” CEO급 논의 여지 남겼지만 SK이노 “우선 지켜볼 것”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강공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여론전이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며 확전을 자제하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을 예고하자 적반하장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 조치 확대까지 검토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LG화학은 3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 인력을 빼내가며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고 ITC에 ‘영업비밀 침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말 ITC에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비방과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적 행위들로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경쟁사는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 주주활동을 벌여왔다”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분명히 밝히지만 그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경쟁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신형철 LG화학 부회장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는 최고경영자(CEO)급 손해배상 논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사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대화의 장이 실제로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SK이노베이션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들고 와서 대화를 하자는 경쟁사의 태도에 진정된 대화 의지가 담겨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프리뷰 중으로 곧 승인이 날 것”이라며 LG화학의 추가적 소송 검토에 대해서는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 일지

- 2017년 12월 LG화학, 대전지법에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 5명 대상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 2019년 4월 LG화학, 美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 6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 8월 SK이노베이션, LG화학·LG전자 상대로 美 ITC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검토
- 9월 LG화학, 추가 소송 검토



## 르노 마스터 ‘안전성 호평’ 판매 41% 증가



유럽 현지에서 줄곧 세그먼트 판매 1위를 기록해온 르노 마스터가 국내에서 인기다. 다양한 전자장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크게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사진제공 르노삼성

###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등 갖춰 파워트레인 부품 10만km 보증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선보인 경상용 밴 ‘마스터’가 내수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성과와 공간,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는 한편, 다양한 전자장비를 포함한 안전장비가 구매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3일 자동차 업계와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지난달 르노 마스터는 총 328대가 판매돼 전월 대비 40.8% 증가했다. 마스터 밴이 172대,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미니버스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마스터 버스가 156대가 팔렸다.

르노는 한국시장에서 브랜드 효과를 발판 삼아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마스터는 1980년 출시된 이래 세 차례 세대교체를 거쳐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국내 판매 모델은 2014년 부분변경된 3세대다.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줄곧 해당 세그먼트 1위 자리를 고수해온 만큼 인체공학적 설계와 뛰어난 안전성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마스터의 안전성은 안전 철학을 철용성처럼 지켜온 르노의 브랜드 전략에서 시작

한다.

먼저 충돌 시 실내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엔진룸을 차체 앞에 심었다. 나아가 앞바퀴 굴림 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 안정적 구동력을 유지한다. 네 바퀴 모두 우수한 성능의 디스크 브레이크도 갖췄다. 여기에 도로 상황에 따라 구동축의 제어가 가능한 ‘익스텐디드 그립(Extended grip) 모드’까지 추가해 안전 경쟁력을 확대했다.

다양한 첨단 전자 장치가 안전 운전을 돕는 점도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시속 60km 이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차선을 이탈하면 강한 경고음과 신호를 준다.

노면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거나 블랙아이스 등으로 차가 중심을 잃을 땐 즉각 주행안정장치 ESC를 바탕으로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자세를 잡아준다. 르노 브랜드로 팔리지만 르노삼성 국내 영업망과 서비스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AS 역시 전국 450곳에 달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모품과 파워트레인 부품을 3년 혹은 주행거리 10만km까지 보증받을 수 있어 AS에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덜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현대차, 협력사 물품대금 1.4조 조기 지급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각각 1조4000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의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력사 물품대금을 월 4회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4181억 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전 조기 지급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명대 기자 yeongdai@

참다한홍삼  
추·석·맞·이

참다한 홍삼  
CHAMDAHAN RED GINSENG

# 할인 대전

2019.8.23~9.23

◆ 구매 금액대별 할인 ◆

<p><b>5% 할인</b></p> <p>15만원 이상 구매시</p>	<p><b>10% 할인</b></p> <p>30만원 이상 구매시</p>	<p><b>15% 할인</b></p> <p>60만원 이상 구매시</p>	<p><b>20% 할인</b></p> <p>200만원 이상 구매시</p>
--	---	---	--

**5+1**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49,500원**

**5+1**

클래식  
55,000원 **49,500원**

**5+1**

홍삼 절편 (120g)  
55,000원 **49,500원**

• 온, 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고객상담번호(1661-0308) www.chamdahan.com

# 살아 움직이는 예술... '5G 갤러리'로 변신한 공덕역

## LG U+, 구글과 손잡고 세계 첫 'U+5G 갤러리'

스크린도어에 멈춰 있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스마트폰 화면에 담는 순간, 작품 속 발레리나가 생명력을 얻어 다시 태어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인다. 영화 속 움직이는 액자처럼 그림을 생동감 있게 관람하는 시대가 왔다. LG유플러스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공덕역을 '5G 갤러리'로 만들었다.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 세계 최초 5G 기반 문화예술 공간인 'U+5G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전시된 작품을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앱인 'U+AR'로 비추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작품이 움직인다. 예컨대 정지된 발레리나의 그림을 비추면 U+AR에서 발레리나가 움직이며 공연을 하는 식이다. 재탄생한 작품을 자유롭게 확대하고 돌려가며 생생하게 감상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U+5G 갤러리의 작품들을 구현하기 위해 구글과 손잡았다. AR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구글 렌즈'를 적용했다. 양사는 U+5G 갤러리와 같이 A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5G

스크린도어 광고판 사진 속 발레리나 'AR' 앱으로 비추면 눈앞에서 역동적 공연 펼쳐져 '구글 렌즈' 적용 몰입감 높여 열차·환승계단 갤러리도 눈길

서비스의 글로벌 우수 사례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구글의 컴퓨터 비전 기술과 AI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식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 렌즈의 플랫폼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구글 렌즈의 파트너사는 국내에서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6호선 공덕역에서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5G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증강현실(AR)로 관람하는 'U+5G 갤러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U+5G 갤러리의 33개 작품에는 구글 렌즈가 적용됐다. U+5G 갤러리에서 정지된 이미지가 구글 렌즈를 통해 동영상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듯 보여 AR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였다. 또 구글 렌즈를 활용하면 LTE 및 타사 고객이라도 U+5G 갤러리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U+5G 갤러리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갤러리' △지하철 내부에서 감상하는 '열차 갤러리' △이동하며 눈으로 즐기는 '환승 계단 갤러리' △환승 거점에서 5G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팝업 갤러리' 4개 공간, 총 88개 작품으로 구성했다.

특별한 지하철 차량도 운영된다. 1편(8량) 전체에 꾸며진 열차 갤러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처음 시도한 것으로, 공덕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갤러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하는 공간에 구성된 환승 계단 갤러리와 팝업 갤러리도 눈길을 끈다. 권오철 작가 등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팝업 갤러리에서 LG유플러스의 AR·VR 콘텐츠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5G 기술이 바꾸는 일상'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와 만나고, 아이들이 실내서도 동물과 놀 수 있게 콘텐츠를 확장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 부사장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6개월간 5G 갤러리를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지하철이 갤러리가 되고, 고객들은 5G로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탑승객이 아닌 관람객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메일·업무관리·메신저 통합... '올인원 협업 플랫폼' NHN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출시

업무 자료 한곳에 체계적 정리 외부 파트너와 협업 효율 높여

"온라인상의 협업을 혁신해 인류의 삶을 개선한다."

NHN이 3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통합 협업 플랫폼 'TOAST Workplace(이하 토스트 워크플레이스)'를 선보이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NHN은 판교 플레이뮤지엄 사옥에서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날 김동훈 NHN클라우드사업그룹 이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개발을 시작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트 워크플레이스는 2014년부터 5년간 개발한 통합 협업 플랫폼이다. 메일과 업무관리, 메신저를 통합한 올인원 협업 도구 '두레이(Dooray!)'를 비롯해 전자결재 및 게시판을 통합한 '그룹웨어', 인사와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ERP'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두레이는 이날 정식 출시했으며 그룹웨어와 ERP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두레이에 업무를 등록하면, 프로젝트 내에서 내·외부 협업 파트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업무과정에서 수집·생산한 사진, 문서, 음성, 영상 파일은 '드라이브'에, 텍스트 문서들은 '위키'에 보관하는 등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곳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조직이나 특정 멤버 간 일부는 볼 수 없도록 제한해 협업 상황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아니라라고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효율도 높였다.

현재 두레이는 국내 500여 개의 기업에서 채택해 업무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사업그룹 이사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유승재 우먼스톡 대표는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 좋고 무엇보다 따로 쓰던 메일, 업무관리, 메신저가 하나로 통합돼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토스트 워크플레이스에는 '발표모드'가 탑재됐다. 업무 관련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자동 발표자료로 만들어주며 영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등도 있다. 또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레이아웃을 제공해 이용하는 클릭만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NHN은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정식 출시를 기념해 25인 이하 단체의 경우 두레이 프로젝트, 메일, 메신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인원이 적고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0인 이하의 기업 고객에게는 1년간 최대 베이직 요금제에 한해 90%까지 할인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췄다.

백창열 NHN 워크플레이스개발센터장은 "업무, 메일, 메신저 내용의 실시간 번역 등 실용성과 확장성까지 겸비한 두레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협업이 필요한 누구나 도입 가능하다"며 "2021년까지 국내 협업 플랫폼 시장의 20% 점유율을 달성하고 글로벌 서비스와 견주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여름방학 끝"... 바빠진 교육업계

대교 'AI 오디오북' 서비스  
웅진 '북클럽 플래티넘 멤버십'  
교원 '키즈크리에이터 대회'  
2학기 '고객 선점' 경쟁 돌입

여름방학 비수기가 끝난 교육업계가 2학기를 맞아 치열한 '고객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대교그룹과 웅진씽크빅, 교원그룹을 비롯한 학습지, 에듀테크, 영어업체들이 다양한 개강 전용 상품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대교그룹은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오디오북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네오사피엔스와 'AI 음성합성 기술 기반 오디오북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성우 낭독형·AI 음성합성형의 2가지 형태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유료 판매한다.

향후 대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물과 여러 출판사를 통해 확보한 베스트셀러를 AI 음성합성 기술이 적용된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AI 음성합성 기술을 적용한 유료 오디오북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네오사피엔



스는 웰컴과 카이스트 출신의 음성분야 인공지능 전문가가 팀이 설립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웅진씽크빅은 하반기부터 웅진북클럽 출시 5주년을 맞아 플래티넘 멤버십을 선보인다. 회원제 에듀테크 플랫폼 '웅진북클럽'은 2014년 출시 이후,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도서 큐레이션과 수준별 맞춤 학습 디지털 콘텐츠 등을 선보여 영유아부터 초등생 사이에서 최고의 도서 키즈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웅진북클럽 '플래티넘'은 최상위 멤버십 서비스로, 독서와 학습, 놀이, 자기계발까지 가능한 패밀리클럽으로 구성돼 하나의 멤버십으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

교원그룹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최근 동영상 플랫폼이 유행하는 것에 맞춰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키즈크리에이터 선발대회'를 연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끼와 열정이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를 직접 육성한다. 선발전을 진행해 최종 6명의 키즈 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데, 최대 150만 원 시상과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권을 준다. 이와 함께 수학 전문 인터넷 강의 사이트 썬닷컴은 중

학생을 위해 기초개념 특강을 무료로 공개한다. 2학기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을 복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이다.

금성출판사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3Q 진단검사'를 무료 제공한다. NE능률 토익 브랜드 토마토 토익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수강권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원스쿨(LAB)은 개강맞이 이벤트로 대학생에게 개강에 필요한 경품을 증정하는 '개강 끝장 백팩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패키지 강의 할인권, 15일 연장권 등 다양한 쿠폰이 마련된다.

이재훈 기자 yes@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오늘부터 유통

3000억 규모 발행... 개인 구매시 50만원까지 10% 할인

정부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중에는 4일부터 유통된다. 중기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발행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간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상품권

이나 전자 카드로만 발행됐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개인뱅크), 대구은행(DGB아이엠뱅크), 부산은행(썬뱅크), 전북은행(뉴스마트뱅크) 등 6개 은행의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살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하면 2000억 원 발행 시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매월 50만

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쿠폰(체크페이) 앱도 도입된다. 이를 활용하면 6개 참여은행 외에도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살 수 있다.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돼 결제 시 금액만큼 차감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 비치된 QR 코드를 결제 앱으로 촬영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기부는 10월부터는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몽골에서 돌파구 찾는 유통·외식업계

인구 65%가 35세 미만 젊은층 K푸드 관심 높아 매장 확대

이마트, 최대 규모 3호점 오픈 CU, 진출 1년 새 매장 50곳으로 푸레쥬르·BBQ도 영업 활발

몽골이 국내 유통·외식기업들에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줄점 절벽에 직면한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몽골에 잇달아 매장을 오픈하는가 하면, 외식기업도 K푸드에 대한 현지 호응에 힘입어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유통기업들이 몽골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현지화에 유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출 후 시장을 선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약 65%가 35세 미만 젊은 층이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이마트는 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몽골 3호점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몽골 진출로 현지 식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돼지고기, 생선회, 빵 등 현지에서 자주 먹지 않던 식품을 소개함으로써 현지 식문화까지 바꿔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마트 몽골 3호점 매장이 위치한 곳은 '항울' 구(區)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기존 1호점과는 2.6km, 2호점과는 5.2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 인구는 18만 명으로 고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신규개발지역이다.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1만3550㎡(4100평)로 몽골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현지 대형마트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마트가 몽골에서 거둔 매출은 지난해



현지 최대 규모인 이마트 몽골 3호점.

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3호점 오픈으로 매출 신장률은 더 커질 전망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도 지난달 말 몽골 진출 1주년을 맞았다. 진출 1년 만에 몽골 내 CU 매장은 50개가 됐다. CU는 몽골 진출 1주년을 기념해 현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지난해 8월 몽골 프리미엄그룹의 유통 자회사인 센트럴익스프레스(Central Express) 측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몽골 유통 시장에 진출했다.

양 사는 '몽골 CU 1주년'을 맞아 한국과 몽골에서 동시에 이벤트도 펼쳤다. 8월 한 달간 CU 전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중국 등 동북아 주요 도시를 왕복할 수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증정하며, '몽골리안정식 도시락(4500원)' 등 한정판 몽골 간편식을 구매할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쌍(1인 2매)에게 몽골 4박 6일 패키지 여행 상품권도 선물한다.

외식기업들도 몽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CJ푸드빌의 푸레쥬르와 제너시스BBQ의 BBQ가 대표적이다.

푸레쥬르는 울란바토르에서 현재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푸레쥬르는 2016년 5월 몽골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은 후 현지화 전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푸레쥬르의 현지 파트너사인 '몽베이커리(Monbakery)'는 외식 전문 기업으로, 1998년 한국인 제빵사를 영입해 한국형 원도우 베이커리를 몽골 내 처음으로 선보인 업체다.

현지업체와 마스터프랜차이즈를 통해 몽골에 진출한 비비큐는 현지 대표 미인대회는 물론 국제 미인대회 등을 후원하고 흡소방, 샵브샵브 등 다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농심, 2억 달러 투자 미국에 2공장 짓는다

미주시장에서 성장 중인 농심이 미국에 제2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심은 미국 신공장 부지를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코로나에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기존 공장의 3배 규모인 약 15만 4000㎡(4만6500평) 부지에 지을 계획이다. 공장 건설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억 달러로 농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농심은 미주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농심이 양적, 질적 팽창을 위해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심은 미국 제2공장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말로 예정된 제2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2025년까지 미주 지역에서 현재의 2배가 넘는 6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농심 관계자는 "기존 LA공장 생산량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앞으로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생산기지 확보가 필수"라면서 "제2 공장은 미주시장 내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남미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심은 유탄면 생산설비만 있는 기존 공장보다 달리 제2공장에 건면과 생면의 생산능력을 갖춘 예정이다. 농심이 해외에 건면과 생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은 시장의 수요가 다양하고, 최근 건강식에 대한 소비



캘리포니아 LA인근 코로나에 해외 첫 건·생면 생산라인 구축

2025년 매출 6억 달러 목표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발판

자 관심도 높아진 만큼 건면과 생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면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신제품을 발빠르게 선보이며 유탄면과 차별화된 시장을 키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이 제2공장 부지로 낙점한 코로나는 현재 공장인 캘리포니아 랜초 쿨카몽가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기존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 수급과 물류비용의 효율성, 두 공장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동부지역인 시카고와 뉴저지에 물류센터가 있고, 10월부터는 앨라배마에서도 새로운 물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부는 생산기지로 삼고, 동부는 주요 지역에 물류 거점을 세워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화장품 만드는 의사들

피부와 원장 안건영 대표 '닥터지' 매출 고공행진 정진호 서울대병원 교수 '제이제이호...' 중 진출 신기술 바탕 제품력으로 승부... 뷰티업계 새바람



전현직 의사들이 뷰티 시장에 뛰어들며 '의사 CEO'로 활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업체들의 화장품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며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의사들도 신기술·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고운세상피부과 원장 출신인 고운세상 코스메틱 안건영 대표가 만든 '닥터지' 브랜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출발한 닥터지는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지사 설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운세상의 지분 51%(330억 원)를 스위스 유통 대기업 미그로스그룹에 넘기며 내년 유럽 시장 진출까지 준비 중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인 전문의들도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이자 피부 노화 연구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정진호 교수는 다양한 임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진호이펙트'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335편의 논문과 72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정 교수는 최근 '제이제이호 더마 플러스(JJ-HO DERMA+)'를 론칭했다. 제이제이호 더마 플러스는 정 교수가 피부에서 소실된 혈액형당을 다시 증가시키면 건조한 피부가 호전된다는 사실을 임상연구 결과로 확인하고 관련 특허기술을 화장품에 담아낸 제품이다. 7월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이자 홍콩지주회사인 컬러레이로부터 23억 원을 투자받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세포치료제 연구 기업 프로스테믹스 박병순 대표도 셀파크 피부과를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로, 신시장 개척을 계획 중이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미용 시장을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박 대표는 프로스테믹스의 주력 상품인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바

탕으로 탄생된 탈모 치료나 피부 재생을 돕는 앰플 'AAPE'에 이어 '엑소좀(Exosome)'을 활용한 '레드스테믹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하던 셀파크 피부과는 복합 피부 재생 공간 '셀파크 뷰티리조트'로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피부 재생 관련 원스톱 서비스 및 줄기세포 재생효과를 극대화한 엑소좀 적용 제품 체험존 등이 마련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적극적 마케팅 없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란 쉽지 않다"며 "의사 CEO들은 과거와 달리 신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품력과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뷰티업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12년 약 35조 원에서 2020년 81조 원 규모로 2배 이상 커지는 한편, 병의원 화장품도 4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사과 대신 망고... 빨라진 추석에 바뀐 선물세트

샤인머스켓·멜론 등 대세로

이른 추석에 이색 과일 선물세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열대 과일 선물세트의 수를 늘리고 기존 선물세트와 열대과일을 혼합해 구성한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열대과일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망고 농장에서 재배한 '제주 망고 세트(왕망고 4입)'를 선보이고, 용이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해 '드래곤 과일'이라고 불리는 '제주 용과 세트(용과 9입)'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유통업체가 이색 과일 세트를 내놓는 것은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기 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사과나 배 등 전통 과일이 비싸진 이유가



현대백화점은 샤인머스켓 포도 선물세

트 5개 품목(4000세트)을 내놨다. 특히 이 선물세트는 지난달 26일 시작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4일 만에 준비 물량의 30%가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샤인머스켓 두 송이(각 900g 이상)와 프리미엄 멜론(2kg 이상) 1개로 구성된 '샤인머스켓&멜론 세트 VIP'를 6만9800원에 판매한다.

대형마트도 이색 과일 선물 세트를 출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샤인머스켓 포도(청포도)를 메인으로 한 프리미엄 샤론 세트(샤인머스켓 2송이, 머스크멜론 1통)를 6만9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김천·경산 등 유명 포도 산지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켓 5송이를 담은 '샤인머스켓 세트'를 내놨고, 홈플러스는 '망고세트'를 5만4000원에 선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 新외감법 후폭풍... 코스닥 기업 내부회계관리 '비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

회사명	지정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019년 5월 10일
스킨앤스킨	2019년 4월 12일
MP그룹	2019년 4월 9일
차바이오텍	2019년 4월 9일
씨엔플러스	2019년 3월 27일
디젠스	2019년 3월 27일
마이크로텍	2019년 3월 26일
솔트웍스	2019년 3월 22일
유테크	2019년 3월 22일

※출처: 한국거래소



신외감법 여파로 상장사들의 내부회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스닥 기업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기업은 총 38개사로 전년(21개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사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회계 관련 운영실태 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 검토만 받으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외감법 시행으

### 외부감사 의무 대상 확대로

###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운영

### 회계사 컨설팅 비용 등 부담

### 올해 '비적정 의견' 38개사

###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로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 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감사인의 현장 실사를 대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회계 전문성이 취약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비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만 대상이지만 2020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3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시스템 도입이 단순한 일이 아닌데 샘플링(선례)이 없어 비용 측정이 높다"며 "특히 회계사들로 부터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만큼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좋지만 여러 혼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을 받는 주요 사례로는 △회계 담당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오류 △적시에 회계 관련 공시가 이뤄지지 않음 △담당자들의 회계 업무 부담의 비명확 △전산

시스템 보안 미흡 등이다.

현재 셀바스AI, 스킨앤스킨, MP그룹, 에스에프씨, 차바이오텍, 씨엠에스에듀, 디젠스, 파인테크닉스, 엘앤케이바이오 등이 내부회계관리에서 비적정을 받아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KD와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전문실무연수,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상장사 스스로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거래소, 기술특례 상장제도 '손질' ... "신뢰 회복"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우선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의 내실 있는 기술 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절차 합리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수행 시 평가 인력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

### 평가기관 18곳으로 늘리고

### 최소 4인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기간도 '4주→6주' 확대

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 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한다. 또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을 현행 13사에서 18사로 확대한다.

평가기간 확대 및 절차 개선도 시행한다. 기술 평가 기간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해 충실한 기술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문평가기관 간 실무 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 방법·경험을 공유하는 등 기술 평가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기로 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를 축소해 기술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3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 평가를 통해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수 기술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필승코리아' 펀드, 관심 뜨겁네

### 정치인·지자체장 가입 잇따라 '마케팅 효과' 자금 유입 기대

소재·부품·장비업체에 투자하는 이른바 '애국펀드'의 대령 마케팅에 금융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의 설정액은 423억 원이다. 14일 출시 이후 농협금융 계열사들이 시딩머니(기초 투자액)로 출자한 300억 원을 제외하면 출시 이후 보름만에 123억 원가량의 자금을 모집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형 펀드 전체 펀드에는 76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데 그쳤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 첫 펀드 투자로 해당 펀드를 선택,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일본 화이트 리스트 여파에 국산화 이슈로 주목받는 소재

### 애국펀드 현황 (단위: 억 원, %, 3일 기준)

펀드명	운용설정액	1주 수익률
NH-Amundi 필승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423.11	2.21

※출처: 에프앤가이드

부품 장비업체에 주로 투자한다. 문 대통령의 가입 이후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단체로 가입했다. 또 경남, 전북, 충남 등 도지사들 비롯해 각 지역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이 펀드 가입에 동참하며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펀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에 정치권 인사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펀드 운용에) 더 신경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해당 펀드에 문의하는 고객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뚝뚝,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1588-1940** [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

# LSKB “5년 내 매출 3兆… 글로벌 도약”

〈에이치엘비 자회사〉

위암 등 5개 항암제 출시 계획  
‘네오파마’와 조인트벤처 설립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LSKB Biopharma(이하 LSKB)가 5년 내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3일 알렉스킴(Alex Kim) LSKB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IR)에서 글로벌 제약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내년 위암 항암제를 시작으로 대장암, 간암 등 5개 암종을 적응증으로 한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며 “이에 따른 매출액은 28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모회사인 에이치엘비의 합병을 일정대로 완료하고, 네오파마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중동·아프리카·인도 등에도 리보세라닙을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임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노튼(Steven Norton) 박사는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개발 과정과 NDA(신약허가신청)를 위해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알렉스킴 LSKB 대표가 3일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LSKB

그는 NDA(신약허가신청)와 관련해 “FDA에 Pre NDA 미팅을 신청한 상태로 15일까지 미팅 패키지(meeting package)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컨설팅 기업인 코빙턴의 조언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보세라닙의 3상 결과 효능과 부작용 등 다양한 면에서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모에는 3가지 참석 유형이 있

는데 이 중 가장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포디엄으로 초대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진우 에이치엘비 이사는 현재 평가가 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약의 승인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가치 자체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항서제약은 시가총액이 60조 원까지 상승했는데, 정작 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판권을 가진 에이치엘비의 시가총액은 2조 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기자 pgy@

#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주가 맥 못추는 대한유화

주가 11만원대 4년 반래 최저  
중시장 부진·정기보수 영향  
올 2분기 2년 만에 적자 전환

대한유화 주가  
(단위: 원)



대한유화의 주가가 지난해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진한 업황과 공장 보수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2018년 1분기부터 중국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 하락 사이클이 진행됐다. 대한유화도 글로벌 수요 감소와 주력 화학 제품인 HDPE·PP, 에틸렌·프로필렌, C4, BZ, EG·EO 등의 마진 축소를 겪으며 실적과 주가가 악화됐다.

주가는 2018년 2월을 고점으로 지난달 말 기준 18개월간 67% 하락했다. 지난해 1·2분기 1000억 원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올 1분기 500억 원대까지 축소됐다. 올 2분기에는 업황 사이클 둔화와 함께 대규모 정기보수가 진행되면서 2년 만에 분기 적자(-157억 원)를 기록했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유화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다. 6월 기준 부채비율과 순차입금 비율은 20.2%, -0.1%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유동비율은 274.2%다. 유동비율은 200%가

넘으면 재무지표가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증권업계는 현재 대한유화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데다, 현금 흐름을 볼 때 향후 주주 가치 상향 저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3분기 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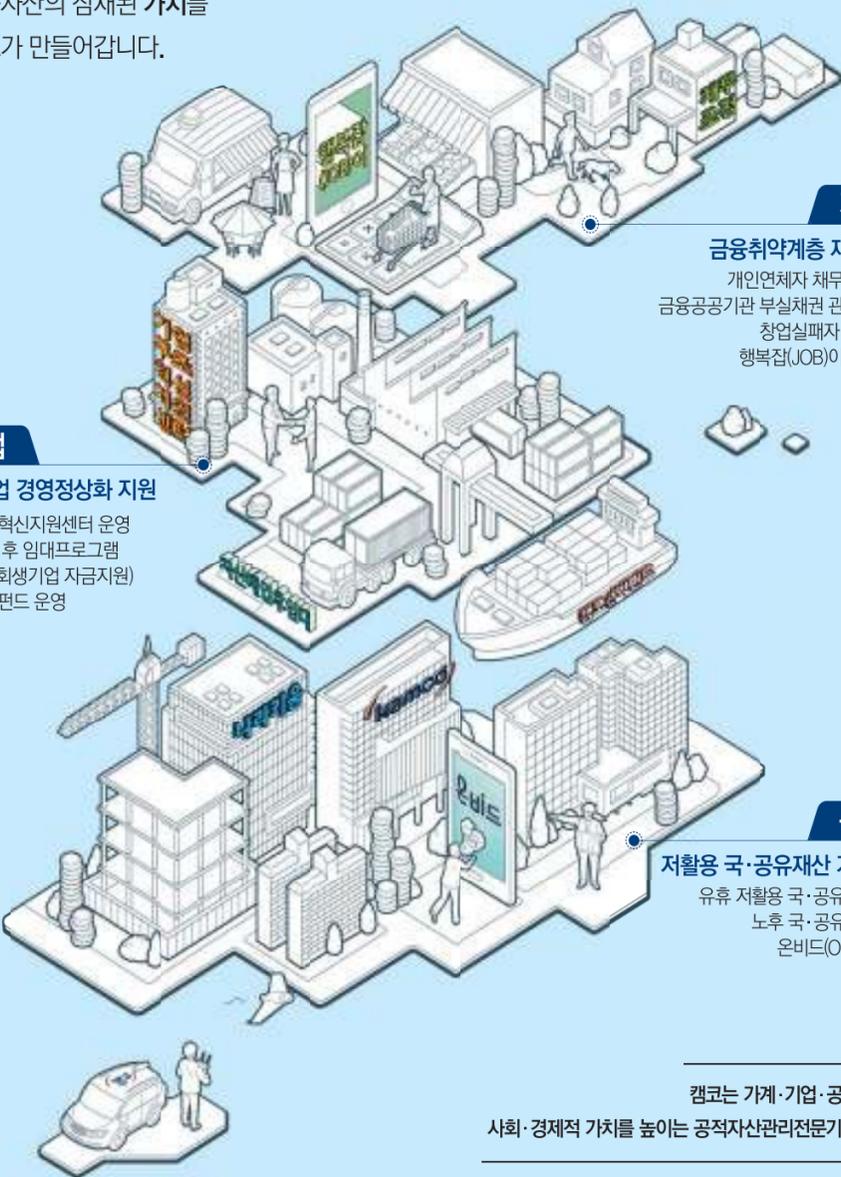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추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700억 대) 및 설비투자비용(CAPEX) (1000억 원 내외) 등을 감안하면 대한유화의 연말 순현금은 1000억~1500억 원 내외가 예상된다”며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배당금 수준(247억 원)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볼 때 현재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라고 분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 와이솔, 대규모 유증 결정에 엇갈린 시선

“신사업 투자, 증장기 역량 확보”... “주주가치 희석” 우려도

코스닥 상장사 와이솔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사업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 속에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솔은 지난주 최대주주 대덕전자를 상대로 하는 53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각각 350억 원, 1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덕전자의 지분율은 증자 참여 후 31.66%까지 오르게 됐다.

자금은 주력 사업인 휴대폰 SAW 필터 사업의 확장과 현재 개발 중인 BAW필터에 대한 투자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유증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장중

신저가(1만330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6월 한때 신고가(2만600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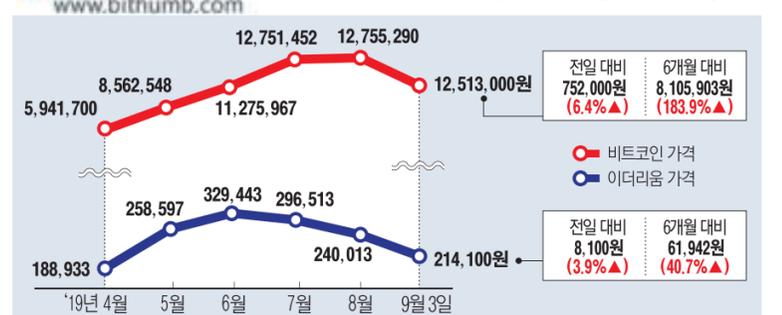
시장에선 이번 증자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EPS(주당순이익) 희석 요인이고, 시점과 방법에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복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운영자금은 SAW 필터와 BAW 필터에 대한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먹거리를 위한 준비로 해석된다”며 “증장기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대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9월 3일 17:0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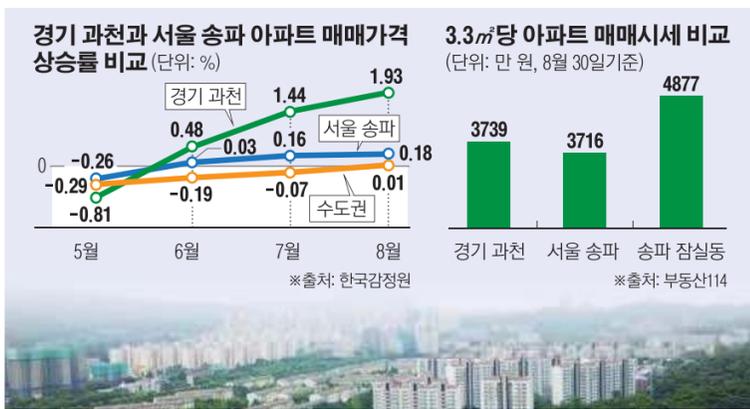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54,700	15,600 (4.6%▲)	모네로	87,100	3,400 (4.1%▲)
리플	313	6 (2.0%▲)	비트코인골드	14,840	590 (4.1%▲)
라이트코인	81,150	2,150 (2.7%▲)	이더리움클래식	8,125	600 (8.0%▲)
대시	129,400	700 (0.5%▲)	퀀텀	2,722	94 (3.6%▲)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중위매매가격 11억1000만원〉

# ‘과천의 반란’...송파구 아파트값 턱밑 추격

8월 매매·전셋값 상승률 전국 1위 중위매매가 11억으로 1000만원 차 ‘준강남권’ 입지에 3.3㎡당 3739만원 잠실 등 부촌 빼곤 송파구 앞질러  
 신규 분양 기대감에 ‘가장 핫한 도시’ 상한제 땀 재건축단지 하락 가능성



과천 아파트 매매가는 송파구의 최고 부촌인 잠실동과 신천동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을 따라잡은 상황이다. 3.3㎡(1평)로 따지면 과천 아파트값은 이미 송파구를 넘어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과천 아파트값은 3.3㎡당 3739만 원으로 송파구(3716만 원)보다 비싸다. 동네별로 비교해 보면 송파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잠실(4877만 원)·신천동(4221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올림픽션수준아파트가 들어선 방이동(3699만 원)을 제친 상태다. 과천 아파트값이 최근 매서는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를 보면 8월 과천 아파트값이 1.93% 올라 전국 시·군·구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6월(0.48%)과 7월(1.44%)에 이어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8월 한 달 새 0.18% 오른 송파구를 무서운 속도로 쫓고 있는 것이다.

최고가 거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수르 아파트(2008년 입주) 전용면적 59.97㎡(10층)는 지난달 15일 10억5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전 거래 가격보다 7000만 원 오른 것이다. 현재 입주주택은 11억600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중앙동 래미안코펠리스(2007년 입주)는 전용 84.94㎡(8층)도 7월 말 12억5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 전월 거래가보다 5000만 원 비쌌다.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과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과천 푸르지오 써밋(옛 과천주공1단지)과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등 후분양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고분양가 책정에도 큰 인기를 끌며 조기 분양하면서 주변 단지 매매 시세를 자극했다”며 “여기에 지식 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과천지구)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들쭉이 있다는 것도 매매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과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다. 지난달 2.22%나 오르며 같은 기간 과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까지 추월했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과천은 오히려 이 비율이 높아졌다. 전세가율이 지난달 47.01%로 전월보다 0.6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과천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경우 인근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동 G공인 관계자는 “과천이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되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포스코건설 ‘프리패브 공법’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적용

내달 입주 ‘용인 상현 더샵’ 도입  
 포스코건설이 주요 구조물을 사전 공장 제작해 현장 조립하는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국내 최초로 아파트 건설에 적용한다. 프리패브 공법은 그동안 대형 산업 플랜트에만 적용해 왔다. 포스코건설은 철강재를 소재로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프리패브 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 모듈러 전문기업인 ㈜유창 및 구조물 강제 연구기구 ‘강구조학회’와 함께 1년간 연구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아파트의 옥탑 구조물, 재활용품 보관소, 욕실 등을 철강재를 사용해 공장에서 맞춤 제작한 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모듈 형식으로 조립·설치할 계획이다. 프리패브 공법을 활용한 재활용품 보관소는 내달 입주 예정인 ‘용인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에 적용됐다. 옥탑 구조물과 욕실도 향후 건립 예정인 더샵 단지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준강남’ 지역의 대표 주거지로 꼽히는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매 물건이 소화되고 호가가 치솟더니 어느새 과천 집값이 강남3구인 송파구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입지적으로는 준강남권에 속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명실상부한 강남권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8월 기준 11억 원으로 송파구(11억10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위 매매 가격이란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과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은 8억55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송파구(11억500만 원)와의 차이가 2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차이가 불과 1년 새 1000만 원으로 좁혀진 것이다.

## LH 분양정보 ‘한눈에’ 전국 ‘비즈맵 서비스’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사업지구별 판매 정보를 지도 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로 보는 판매정보 LH 비즈맵(Biz-MAP)’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비즈맵은 LH가 개발하는 전국의 사업지구와 토지, 주택, 상가 분양 관련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구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디벨로퍼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및 일반인도 LH가 공급하는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비즈맵’을 검색하거나, LH청약센터에서 ‘지도로 보는 판매정보 Biz-MAP’을 클릭하면 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상한제 여파...주택사업 체감경기 올 들어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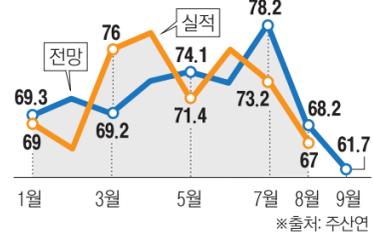
이달 HBSI 전망치 61.7...서울은 62.9로 2년 만에 최저

이달 주택사업 체감 경기가 올 들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로 주택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

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1.7로 전월보다 6.5포인트 하락했다. 2개월째 60선이자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로 가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

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동안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은 전월보다 22.2포인트 하락한 62.9까지 내려가며 24개월 만에 60선을 기록했다.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이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망치 수준과 비슷하고, 지난해 나온 9·13 대책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추이



의 영향보다는 더 부정적이라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8월 HBSI 실적치는 67.0으로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오투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우와 맞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우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모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 권의 책 속에 담긴 1,000 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운 불행,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00원 / 215.000원

# 서울교총, 교사 상대 유사수신 행위

## 상조기금 부실 운용 240억 날려... 前 회장 2명에 벌금형

### '돈 불려준다' 상조 가입 권유 회비 고위험군 투자 거액 손실 법원, 서울교총엔 '선고 유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교사들의 돈 270억 원을 쟁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유모 서울교총 전 회장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은 벌금 1000만 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서울교총 사무총장과 복지관리국장을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상조 가입을 권유했다. 매월 1구좌(1만 원)에서 20구좌(20만 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 적

금 평균금리 1.0%·연복리·비과세라고 적힌 안내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또 '본 상조회는 상조(애경사)에 대한 경조비 및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순수 적금 형태로 운영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회장은 2011~2014년까지 8592명으로부터 합계 99억 8372만 원을, 유 전 회장은 2014~2017년까지 7427명으로부터 177억 7483만 원을 받았다. 서울교총은 1993년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총 상조회는 교사들에게 받은 돈을 고위험군에 투자하다 2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만기금과 해지금 등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적인 업무처리를 한 바가 없어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며 "그러나 서울교총 회장으로 당선돼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상조회

의 존재나 상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에 관해 개괄적 내용은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직 중 상조회를 총괄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임기 동안 비상근직인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양형에 대해 "상조회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은 평생 교육자로서 모범적으로 살았으므로 보이고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법인을 벌금형에 처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들에게 귀결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용 기자 deep@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3일 서울 양재 aT 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전시장이 취업 준비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 단속

## 서울시, 100곳 리스트 만들어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등 점검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 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불법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 사항)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약정 이자율 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 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 대출'은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또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 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 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설정진 기자 skj78@

# 국세청 '무늬만 일반음식점' 탈세 막는다

## 유흥주점 변칙 영업 '현미경 검증'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탈세를 일삼은 업주들에 대한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세당국이 올해 초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데 등으로 말미암아 변칙영업을 통해 탈세를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부터 과세유형업종으로 의심되는 일반음식점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설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주점업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과세유형장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으로 자동 분류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불법 유흥주점 근절 및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유흥주점 단속 자료를 활용, 과세유형업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변칙영업 등의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창원시장, 행정구청장 임명' 현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창원시가 지정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투표가 아닌 시장 지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 구청장 임명 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BRAVO**  
My Life  
2019. 09. 13

**Fatigue**

**COVERSTORY 피로, 굶바이**

- PART1. 뇌 휴식법 - 도시인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에서 온다
- PART2. 신체적으로 피곤한 질병 14가지 - 가끔은 피곤을 친구로 삼아도 괜찮다!
- PART3. 장(腸) 건강 프로젝트 - 활력 UP! 만성피로 DOWN!
- PART4. 노화 가장 빠른 눈, 피곤함에 더 예민 - 뻑뻑한 눈, 촉촉하고 건강한 눈으로
- PART5. 발 피로의 원인 - 발, 이럴 때 피로하다
- PART6. 백세 건강을 위한 '행복호르몬' - 슬기로운 피로 컨트롤러가 되자
- PART7. 피로 과잉의 계절 - 명절 피로 날려주는 한방(韓方)

**신라비가 만난 사람**

 아무개의 인생 좌표는 4차원 지도 속에 있다 국민대 김한승 교수	 달항아리로 보듬는 우리 사는 이야기들 백자 달항아리 화폭에 담은 최영욱 화가	 울편에 두 번째 인생을 던졌습니다 울놀이연구소 조광휘 소장
---	--	--

**타박타박 산책 계곡 건너고 숲속 지나 찾아가는 호젓한 '달실마을'**

어느 해인가 추석 즈음 달실마을에 간 적이 있다. 푸른 논 너머로 기와집들이 보였다. 기와지붕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봉긋 솟았다. 마을 앞에는 계곡이 흘렀다. 풍수지리를 몰라도 이곳이 명당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부녀회관에 모여 추석 한마를 만드느라 분주했다. 한 할머니가 손에 쥐여준 한과를 맛봤다. 500년 전통을 이어온 달실한과였다. 그 뒤로 이따기면 달실마을이 생각난다.

**고고가게 대구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집, 이름이야 '고고가게'를 찾아가 본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선별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쳐라!

**더불어 숲 꽃빛 번져 천지가 붉다상이라면?**

**귀촌**

**귀농으로 몸 건지고 정신 닦고**

그는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해 귀농했다. 죽을 길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기 위해 산골에 들어왔다. 그 외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결과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시들어가던 그의 구슬픈 신체가 완연히 회생했으니, 산골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아름답고 기묘한 지구별과 이미 작별했을 거란다. 현명한 귀농이었다는 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도사라 부른다. 이 사람, 정경교(62) 씨의 삶에는 색다른 게 있다. 누가 뭐래도 제멋대로 산다.

**홈메이드 사찰음식+ 골다공증과 혈관질환에 좋은 연어 활용 레시피**

**김성우 변호사 황훈결혼과 이혼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비트코인의 이유 있는 독주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500여 개의 주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중 70%가 비트코인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8일 최저점인 33.47% 이후 연일 상승중입니다. 자금이 비트코인에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관 자금, 안정성에 몰린다 = 최근 해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투자 기업들에 따르면 전보다 많은 기관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기관 투자자를 대신해 한 달에 약 20억 달러, 매주 2억~4억 달러의 새로운 가상화폐 자산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자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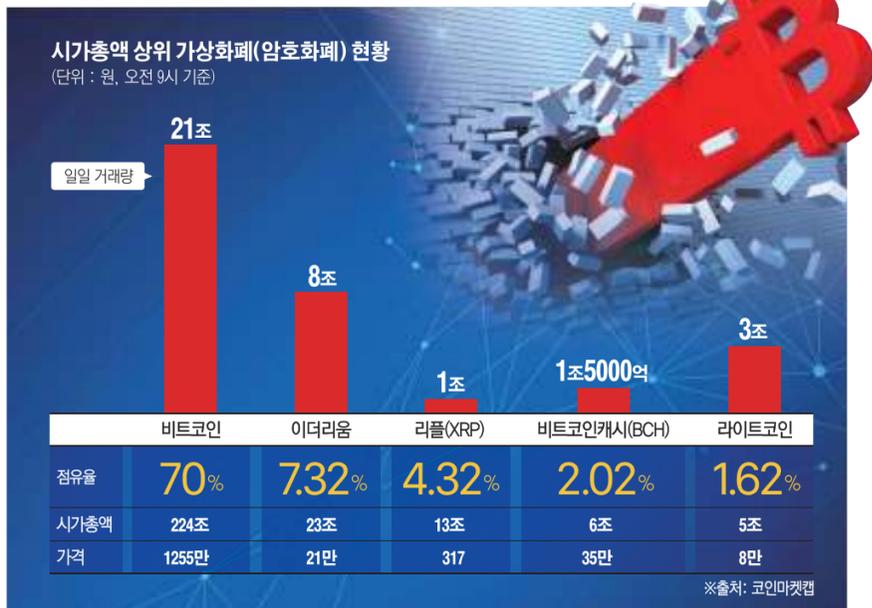
이 기관 자금의 수요 중 비트코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유는 역시 비트코인이 유지돼 온 기간이 길고, 가장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선물 거래 중이고, 초대형 거래소 사업자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CE)'가 투자한 코인 거래소 '백트(Bakkt)'의 선물 거래가 예정된 만큼 검증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 못 쓰는 경쟁자들 = 기관 자금의 강력한 신뢰를 받판으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반감기인데요. 반감기는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약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는 내년 5월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블록당 12.5비트코인에서 6.25비트코인으로 연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한 만큼 희소성이 증가하는 셈이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후에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직전 반감기였던



안정적 네트워크에 기관 자금 쏠림  
美 CME 선물 거래 등 신뢰도 높아  
2500여개 코인 시총 중 70% 점유

4년마다 반감기... 채굴량 절반으로  
발행량 많은 이더리움보다 희소성 ↑  
안정성 높지만 느린 전송속도는 숙제

2016년 7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적할 만한 프로젝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기능과 속도 면에서 앞서 있지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입니다. 비트코인을 넘어설 만큼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지 못했고, 연간 발행량이 많아 희소성에서도 불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더리움 2.0'이 완성되는 데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프로젝트 비트코인캐시

(BCH)도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가 총액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류 비트코인으로 자리 잡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느린 기술 발전은 걸림돌 = 비트코인의 위세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년간 장부의 위·변조 없이 살아남았고, 단 한 번의 해킹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017년 상반기까지 전송하는 데 몇 시간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네트워크 포화가 심각했습니다.

2017년 8월 기록에서 전자서명을 분리하는 '세그윗(Segwit)' 패치 이후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송하는데 1~2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 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이 넘는데요. 네트워크 수용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전송 수수료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닝네트워크(LN)'라는 기술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까진 검증이 필요하죠.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은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hura@

## 시장 이모저모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구글 검색량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블록체인 연합하이퍼레지(Hyperledger)가 첫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채택했다.



###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서 브렉시트 앞서

비트코인의 구글 검색 트렌드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크로브는 "최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관심을 받는 브렉시트 및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신임 영국 총리보다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검색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6월 말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만4000달러까지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이퍼레지,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채택

기업용 블록체인 연합 하이퍼레지가 공식적으로 컨센시스(ConsenSys)의 판테온(Pantheon) 프로젝트 참여를 승인했다.

하이퍼레지 오픈소스 컨소시엄 산하 기술운영위원회는 29일 판테온 프로젝트를 '하이퍼레지 비수(Hyperledger Besu)'라는 이름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테온은 8일 하이퍼레지 패블릭(IBM), 하이퍼레지 소투스(인텔)와 같은 하이퍼레지 컨소시엄 회원으로 제안됐다.

판테온은 컨센시스의 엔지니어 팀인 페가시스(PegaSys)가 이더리움을 활용해 만든 서비스 제품군이다. 판테온은 이더리움의 퍼블릭, 프라이빗,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작동한다.

### '보상 반토막' 라이트코인, 채굴자 '똥'

라이트코인(LTC)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 반감기 이후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채굴자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가상화폐 채굴풀 BTC닷컴에 따르면 라이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반감기 전날인 지난달 4일 1593만에서 22일 1140만까지 떨어졌다. 채굴 난이도는 채굴 보상을 받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수학 연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척도다.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을 뜻하는 '해시레이트'도 28% 하락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 난이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린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 “세상에 없는 가전 만들려 100종 넘는 맥주 마셨죠”

## 캡슐형 수제맥주 제조기 'LG 홈브루' 개발팀 3인

### 맥주 소믈리에 과정 참가하고 양조 교육기관 수강도 완성도 높이려 사외고객평가단 대상 수개월간 검증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맥주 종류가 3만2000개나 된다는 것을 알았고, 100종이 넘는 맥주를 마셨다.”

LG전자는 7월 세계 최초로 캡슐형 수제 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출시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LG전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의류관리기 스타일러에 이어 또 한번 신(新)가전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은숙 키친어플라이언스 상품기획팀 책임은 “주거 공간이 갖는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맥주와 함께 하루를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니즈를 반영해 제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진은 세계 최초의 가전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맥주를 제대로 알기 위해 양조 교육 기관을 찾아 양조 과정을 배웠다. 맥주 소믈리에 과정에도

참여해 맥주의 주재료와 종류, 맛 등을 알아갔다.

홍진표 선임연구원은 “제품을 연구할 때 맥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이 들어가면 맛 없는 맥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맛있는 맥주맛을 유지하기 위해 세척, 살균과 같은 위생관리도 철저히 연구했다”고 말했다.

LG 홈브루는 기기 스스로 맥주 제조 전·중간·후 등 총 3번의 온수 세척을 실시해 부착균과 부유균 99.9%를 살균한다. 제품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6개월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방문해 제품을 관리한다.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에도 여러 고민을 했다. 신대기 디자인팀 책임연구원은 “소비자가 양조장에서 갖 만든 맥주를 바로 뽑아 마시는 기분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양조장에서 쓰는 원통 모양의 통과 맥주를 따를 때 쓰는 탭을



LG 홈브루 개발 과정에 참여한 LG전자 신대기 디자인팀 책임연구원, 오은숙 키친어플라이언스 상품기획팀 책임, 홍진표 선임연구원(왼쪽부터).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LG 홈브루는 올해 1월에 열린 CES 2019에서 이미 공개됐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주관하는 국제디자인 'IDEA'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식 출시까지 약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데는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였다고 개발진은 강조했다. 오 책임은 “LG 홈브루 품질에 대한 완성

도를 더 높이기 위해 LG전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외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검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가전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혁신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이를 통해 고객의 일상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한일오닉스, 강대선 대표 영입

국내 주방설비업계 1위 기업인 한일오닉스가 강대선 전팍스넷 사장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3일 한일오닉스는 주방 설계, 제작을 넘어 글로벌 푸드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강대선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대선 한일오닉스 신입대표는 하나대투증권, SK Telecom, STX그룹, 한국벤처투자를 거쳐 팍스넷에서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통신·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홍보, 신규 사업 등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경영전략 전문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쉐라톤그랜드인천 윤덕식 총지배인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이 윤덕식 총지배인(46)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덕식 총지배인은 2002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힌(현 그랜드 워커힌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2009년부터 6년간 리즈 칼튼 서울(현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세일즈&마케팅 이사로 근무했다. 2017년부터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을 거쳐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의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를 맡아왔다. 박미선 기자 only@

##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사진) 씨가 서점인들이 뽑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는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앞두고 제3회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작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서련은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서점인들에게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작가'를 추천받았다.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조정래 작가는 올해 '천년의 질문'을 출간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 인사

- ◆여성가족부 ◇전보 △다문화가족과장 김가로
- ◆LSK Global PS △상무 나현희

## 부음

▲박정희 씨 별세, 이현순(㈜두산 지주 부문 기술담당 부회장) 씨 모친상 = 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860-3500

▲조희분 씨 별세, 김애숙·대환(김스컴 퍼니 대표)·인숙(프렌치반 대표)·지숙·승환(회사원) 씨 모친상, 최창원(배재대 교수)·박양수(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 씨 장모상, 최애자·이지연 씨 시모상 =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02-2227-7590

▲김경원(전 농협지점장) 씨 별세, 김정렬(심양길우기계 총경리)·순희(도봉구 보건소 약사)·선희·지선 씨 부친상, 이강필(비즈니스스포츠 전문)·박찬혁(RNB 인터내셔널 대표)·반재덕(엑솔타코리아 상무) 씨 장인상 = 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2-2258-5940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태국과 MOU



김태영(왼쪽) 은행연합회장과 썬레디 다오차이 태국은행회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국 은행협회는 이번 MOU에 따라 교육, 연수, 상호 방문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스마일게이트, 태국 푸켓서 취약계층 건축 봉사활동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국제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태국 푸켓에서 현지 취약 계층을 위한 건축 봉사활동(글로벌 빌리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희망스튜디오와 한국해비타트의 협력하에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크로스파이어 라이브 개발 스튜디오 소속 임직원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10채의 보급자리 마련을 목표로 태국 푸켓 현지에서 건축 봉사활동을 펼친

다. 이를 위해 희망스튜디오와 한국해비타트는 이달 초 태국 푸켓에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혜 가정 10가구를 선정했다. 특히 단순 주택 기부가 아닌 수혜 가정이 자립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집을 짓는 봉사활동에 수혜 가정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관계자는 “건축 봉사활동이 종료되는 5일에는 희망스튜디오와 한국해비타트 주최로, 건축 봉



사활동에 참여한 스마일게이트그룹 임직원들과 수혜자들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혜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한화, 만주 독립운동 현장에서 '청소년 해외평화캠프'

### 취소감옥·압록강 단교 등 찾아

(주)한화는 청소년들과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한화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평화캠프'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여수지역 청소년 20명과 (주)한화 여수사업장, 여수 YMCA 관계자 6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뤼순, 단둥, 하얼빈 등 만주지역 일대의 역사적인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넋을 기렸다.

청소년들은 '지나온 100년'과 '미래의 100년'이라는 두 가지 큰 테마를 갖고 이

번 해외평화캠프에 참가했다. '지나온 100년'에서는 상하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되었던 뤼순감옥을 직접 둘러보며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의 100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끊어진 압록강 단교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평소 쉽게 가볼 수 없는 서백두산을 등정하며 민족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여선중학교 2학년 김민채 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우리 민족의 뜻깊은 역사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새로웠고 가슴에 더 와닿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한화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평화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운동주 전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주)한화

## 넥센타이어, 마곡 중앙연구소에 'N젤 어린이집' 문열어

넥센타이어가 직장 내 보육시설인 'N젤 어린이집' 마곡 캠퍼스를 2일 열었다.

넥센타이어가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건 경남 양산공장과 창원공장 사원 아파트에 있는 'N젤 어린이집'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문을 연 'N젤 어린이집'은 4월 개관한 넥센타이어의 마곡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 건물 1층에 자리했다.

'N젤 어린이집' 마곡 캠퍼스는 208㎡ 규모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 교육실, 놀이방 등을 만들었다.

전문 위탁운영기관인 라임 교육연구소



와 협업해 만 0세부터 5세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4개로 1위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에서 한국 학생들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일 지난 달 26일부터 이날까지 대구 광역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금메달 4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지훈 학생(경남과학고 3)은 개인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43개국에서 학생 179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2위는 대만, 3위는 미국이다. 홍성동 기자 hong@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시상식. 왼쪽부터 정동민(낙성고 2), 남호성(대구일고 3), 김지훈(경남과학고 3), 최민우(경기과고 3) 학생. 사진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중국을 지금



박승찬  
영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사드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중 간 협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미중 간 패권 다툼 속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일 간 마찰로 인해 중일 간 경제협력력이 가속화되면서 코리아 패싱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수교한 후 올해로 27주년이 되었다. 흔히 한중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중국 고사성어에 비유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만큼 한중 양국은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 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양국 관계는 매우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중국이라면 모든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혐중·반중(Sinophobia) 현상과 중국몽(Chinese Dream)으로 대변되는 중국식 패권주의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포비아'가 한국 내에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역사를 둘러싼 동북공정 문제와 미세먼지, 불법조업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중국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중국 관련 모든 요소를 혐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 시작된 사드 이슈가 한중 양국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치외교적 이슈에 발목이 잡혀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도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사드 사태 이후 롯데마트 철

수, 삼성 스마트폰 및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등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로 점철되어 있다. 어느덧 중국시장은 한국 기업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중국시장에 대한 환상 깨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8월 한 달간 중국 여러 도시를 돌며 중국 내 산·관·학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한중 양국 모두 동질성 회복과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년의 한중 관계를 회고해 보면 크게 4단계로 진화되어 왔다. 1단계는 한중관계 1.0시대(1992~2000년)로 양국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협력한 시대였다. 선린우호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단계별로 격상되면서 양국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해 함께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경제 관계는 서로 충돌이 없는 산업 간 분업구조를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최적화했던 시대였다. 2단계 한중 관계 2.0시대(2001~2011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더욱 밀접해지고, 경제적으로 양국 간 협력 범업체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는 시기였다. 특히, 한국 기업

의 대중국 투자가 급물살을 타며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진행되었다. 3단계 3.0시대(2012~2017년)는 한중관계의 최고 절정기와 퇴보기를 함께 경험하는 이른바 '한중관계의 롤러코스터 시대'였다. 2015년 9월 미국과 일본 등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여 탄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군사 열병식을 관람했다. "지금 한중 관계는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 관료와 기업인들이 필자에게 한 말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시기로서, 경제 협력도 과거 가공무역 형태의 단순 협력에서 14억 내수시장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사드 사태가 발생하며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협력 관계가 멈춘다. 또한 이와 맞물려 중국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급속히 성장하며 이전의 협력 분업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경쟁관계로 진입하면서 한중 간 산업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한중 관계 4.0시대(2018~현재)는 미중 간 패권전쟁과 한일 간 무역마찰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사드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중 간 협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미중 간 패권 다툼 속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일 간 마찰로 인해 중일 간 경제협력력이 가속화되면서 코리아 패싱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1일 베이징에서 만난 양국 외교 장관은 한중 수교 27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처럼 내생 변수가 아닌 외생 변수에 따라 요동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의 돌파구는 다가올 시진핑 주석의 한국 국민 방문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한중 관계 4.0시대 구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의 사면초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순망치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기이다.

정책발언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미국의 심리학자 호프스태터 박사는 1979년 저서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란'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호프스태터의 법칙'이라 명명하였다.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법칙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호프스태터의 법칙은 오늘날 '계획의 오류'로 불리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계획의 오류'의 대표적 사례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총 77억 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없던 지붕 구조를 설치 등이 추가되면서 10년이 지난 1973년에 당초 예산의 14배에 달하는 1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다. 이러한 '계획의 오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표적 원인으로는 작업

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계획 수립 시 주요 작업만 고려하고 세부 작업을 생각지 못한 부주의를 들 수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획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 밖의 사안에 대비하고,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작업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현재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새만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특화된 기업 지원책 등에 힘입어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유치는 대표적 변화 사례다. 과거에는 투자협약이 1년에 서너 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산업 추진, 장기 임대용지 확보와 임대료 인하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8건, 올해는 벌써 13건에 이르는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 4월 이후 입주계약도 9건에 달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기반시설의 경우, 새만금을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서도로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와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을 통한 물류 인프라 확충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호랑이를 탄 사람이라도중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 힘차게 달리는 그 모양새만을 보자면 현재 새만금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 등에 탄 새만금 사업이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의 오류'에 빠져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내년은 새만금 사업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융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등 2011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10여 년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전면적인 계획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마스터플랜(MP) 재정립은 더욱 변화할 향후 10년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개발 로드맵의 마련으로 '계획의 오류'를 최소화시켜 새만금이 지향할 비전을 실현시킬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 알베르트 슈바이처 명언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독일계 프랑스 의사.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병원을 개설해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인도(人道)의 전사' '원시림의 성자' 등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오 늘은 그가 세상을 하직한 날. 1875~1965.  
☆ 고사성어 / 옥석혼호(玉石混淆)  
옥과 돌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말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음을 뜻한다. 원전은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 "세상 사람들이 천박한 시부(詩賦)를 즐기는가 하면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을 가볍게 여기며 미로운 말을 어리석은 말로 여기고 헛되고 달콤한 말에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이 바뀌고 옥과 돌이 한 데 뒤섞여 있으며 상동(桑同·속악(俗樂))을 광악(廣樂·아악(雅樂))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풀로 엮은 옷을 용무늬 옷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톱니효과(Ratchet Effect)  
생산 또는 소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현재보다 낮았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 반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미로 J. S. 듀젠베리가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  
☆ 유머 / 죽어도 못 버리는 버릇  
장 의사가 오른팔을 앞으로 내민 채 굳어 버린 시신을 관에 넣지 못해 고민하다 목사를 찾아갔다. 목사가 죽은 사람 직업이 정치가라 하자 그가 바로 내린 처방.  
"그럼 간단하죠. 100만 원 한 다발을 손에 쥐어주세요. 내민 팔을 쥘새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호프스태터의 법칙과 새만금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규제개혁, 지금이 적기다

이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작년 97.2에서 올해 9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기업은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2배에 달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여론 조성은 최근에 더

무르익고 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각종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특히,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예컨대 LG전자의 캡슐형 수제맥주 제조기

는 주세법상 규제로 시음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영국대사관에서 열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액티브2에는 심전도 측정 센서가 장착됐지만, 의료기기 규제로 국내에선 무용지물이다. 규제의 역할, 규제개혁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대기업들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개혁을 외치면 친기업, 규제개혁 반대를 외치면 반기업 등이 불법적 접근으로 경제를 바라봐 왔다. 또 친기업은 보수, 반기업은 진보라는 정치적 프레임도 규제개혁의 걸림돌이었다.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 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불법에는 철퇴를,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치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손톱 밑 가시와 신발 속 돌멩이, 기업 프렌들리, 전봇대... 기업의 규제 철폐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친 역대 정권에서 나온 말들이다. 역대 정부는 한목소리로 기업의 규제 개혁과 철폐를 주장해 왔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기업에 회초리를 들이대다가 이후 경제 현안에 집중하면서 재계에 고용창출과 투자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가 규제개혁이다.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 국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내 사그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 읽기와 걷기로 행복 찾기

“제2의 IMF(외환위기)가 온다는데 정말이야?”

얼마 전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교향 친구가 전화를 걸어 꺼낸 첫마디다.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다고 했으며 연락을 해 온 것이다. 해당 방송 내용은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식이다. 따라서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는 것.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최근 가계가 어려워졌냐고 물으니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 중에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학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끊은 경우가 생겼는지도 물어보니 다들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 지인들한테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 지난달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7월보다 0.38%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심지어 아파트에 이어 연립주택까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나마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본 개미투자자들 정도다.

그래서 친구에게 답했다. 제 2의 IMF는 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 데스크칼럼

### 최영희 증기부장



지내면 된다고 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이 온통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 때문에 떠들썩하다. 커다란 사달이라도 난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런데 정말 법무부장관 자리에 누가 앉을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오히려 되물고 싶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아마 국민 대다수가 모를 것이다. 내가 아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괜한 걱정으로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 맞는 말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며, 어쩌면 사소하고 잡다한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

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2의 IMF가 올 거라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관 자리 하나에 난리법석을 떠는 정치권과 언론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그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이다. 바람이 서늘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확연한 가을이다. 좋은 책 한 권 들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들이 가기에 딱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 지인이 한 분 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있다. 바로 ‘걷기’와 ‘읽기’다.

독서는 경영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항상 힘줘 말한다. 또 하나인 걷기는 여러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돈, 명예 등보다 우선하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는 향후 계획을 키우는 데 걷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걸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꾸려 나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러면서 골프는 아니란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혼자 사고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읽기와 걷기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제2의 IMF 타령이나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가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 che@

## 사설

### 저성장·저물가 디플레 공포, 위기 인식 있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에 그쳤다. 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나타난 지표다. 심각한 저성장·저물가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통계청 조사에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2015년 100 기준)로 전년동월(104.85) 대비 0.04% 떨어졌다. 상승률 -0.038%로 1999년 2월 0.2% 이후 가장 낮다. 농·축·수산물 7.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p)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은 0.2% 내렸고, 서비스물가는 1% 올랐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0%대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0.8%)과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2015년(0.7%) 두 해뿐이다.

한은이 집계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p 낮아졌다. 이마저도 1분기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정부소비 가 줄었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농림어업이 -3.6%로 뒷걸음치고, 제조업 1.1%, 건설업 1.6%, 서비스업 0.8%의 성장률을 보였다.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3.2%, 수출이

2.0%로 미미하게 늘어난 반면, 민간 소비(0.7%)는 여전히 바닥이다. 특히 GDP성장률 기여도에서 민간은 -0.2%p, 정부가 1.2%p였다. 민간부문의 역성장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전망한 올해 2.2% 경제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일로이고, 한·일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경기 또한 언제 살아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만 증폭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성장률 1%대 추락을 내다보는 곳도 적지 않다.

디플레의 조짐이 뚜렷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축소로 이어진다. 가장 나쁜 경기 흐름이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소비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추세에 있다. 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고용이 부진한 악순환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디플레 경고를 잇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상황 인식이다. 경기부흥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급하다.

## 박은평의 개평(概評)



정치경제부 차장

### 세상에 나쁜 명절은 없다

남자들도 장거리 운전과 별초에 피곤하고 가사 노동, 처가 이동 등을 놓고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게 불편하고 싫단다.

이런 갈등은 심하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진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명절 우울증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명절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녀의 역할 분담 문제, 고부간의 갈등, 친척 등 낯선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등으로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 매년 명절 연휴 직후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수도 증가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다음 달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직전 달(2616건)보다 29% 늘었다. 2017년에는 3215건으로 전달(2519건)에 비해 27.6% 증가했다.

명절 연휴를 즐거운 빨간 날로 느끼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전통 문화를 실용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명절 지내기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유교 전문가들은 차례상은 ‘푸짐하게 격식에 맞춰’가 아닌 분수에 맞게 정성껏 차리면 된다고 한다. 매년 연휴 끝에는 남은 명절 음식 보관 방법과 레시피가 쏟아져 나온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도 줄이고, 결국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

형식보다는 명절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1인 가구, 맞벌이 증가 등으로 사회가 바뀌는 만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983년부터 하락한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 1명 아래까지 내려갔다. 10대, 20대들의 절반은 외동이다. 앞으로 십여 년 뒤의 명절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시대가 변하는데 관습의 끝자락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명절을 좀 더 평등하고 마음 편히 보낼 방법을 찾아보자. 의례를 중시하느라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가사 노동에 지치게 하지 말고 성차별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결혼, 취업, 2세 계획 등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pepe@



### 조국(祖國)과 모국(母國)

요즘 ‘조국’이라는 발음의 단어를 많이 듣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연일 뜨거운 뉴스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TV전 신문이건 SNS건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인명 조국(曹國)과 보통명사 ‘조국’의 발음이 같다 보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이라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잘 활용하여 “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보통명사 ‘조국’은 ‘조국(祖國)’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할아버지 조’, ‘나라 국’이라고 훈독한다. “만 할아버지 즉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은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을 가져온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어미 모(母)’를 쓰는 모국(母國)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라가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나간 나라의 입장에서 본국을 일컫는 말”도 모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국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물론, 국내에 산다고 해서 모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외국에 사는 동포라고 해서 조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듯이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모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조상은 대대로 한국에서 살았을 테니 조국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보다 더 엄밀하게 분류를 하자면 조국은 국내에서 사는 사람에게, 모국은 외국에서 사는 동포에게 더 합당하다. 조국도 모국도 다 눈물이 나도 소중함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曹國)을 위하여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 자연을 닮은 안심건조 직접 확인해보세요

열교환기에  
물이 고이거나  
달을 걱정 없는  
설계인가?

NO 건조기 내부에 물이 고여  
열교환기에 물이 닿으면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슬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열교환기에 물이 고이거나  
달을 걱정 없는 설계라 안심이에요

YES

열교환기를  
직접 열어서  
관리할 수  
있는가?

NO 열교환기를 직접 열 수 없으면  
내부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곰팡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직접 열어보고 솔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 안심이에요

YES

직접관리형 열교환기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



먼지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필터인가?

NO 먼지 필터가 작으면  
먼지를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먼지필터도 대용량이니까 많은 빨래에서 나오는  
먼지도 잘 걸러주어 안심이에요

YES

대용량 울인원 필터  
대용량에 알맞는  
필터 사이즈



건조 온도가  
60°C를  
넘지 않는가?

NO 건조온도가 70°C로 올라가면  
옷감이 줄어들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마법의  
60°C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60°C를 넘지 않는 저온제습 건조로  
옷감 손상 걱정을 덜어서 안심이에요

YES

자연의 좋은 건조  
삼성 건조기 그랑 데



쓰던 건조기 반납하고,  
안심하고 건조할 수 있는  
그랑데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안심건조 페/스/티/벌  
2019.9.1 - 2019.9.30  
www.samsung.com

밀키베이비  
그림작가 김우영